

조선의 名醫 유이태(劉以泰.劉爾泰) 연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¹ ·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²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³ · 단국대학교 몽골학과 교수⁴
유철호¹ · 유원준² · 차웅석³ · 홍세영⁴ · 김남일¹ *

Famous medical doctor Yoo Itae's Study in the Chosun Dynasty

Yoo Chulho¹ · Yoo Won-Jun² · Cha Wungseok³ · Hong Sae-Young⁴ · Kim Nam-il¹ *

¹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Dept. of History, Kyung Hee University

³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⁴Dept. of Mongolian,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Dankook University

Objective : Two famous medical doctors, Yoo Itae(以泰, 爾泰) and Riu Euitae(義泰), have been well known in academic world and public in Sancheong-gun. Yoo Itae is the progenitor of Majinhak which is the therapy for measles, he wrote a "Majinpyun" as the first book of therapy for measles in Chosun. Riu Euitae, meanwhile, is a fictional medical doctor and a teacher of Heo Jun who became real without confirmation of historical truths by Roh Jeongwoo who heard about a name, Yoo Itae. Roh's assertion was quoted in the report of literatures, papers, novel, and telecast without verification. His assertion is exposed in novel and media and it has seriously distorted the hist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tify the historical distortion.

Methods : Various references study was performed. Confirmed a family tree, birth and death year, birthplace, sepulture, words on a tombstone, writing, collections of works anthology and the existence of keepsake. Investigated records of royal family, Sancheong-gun papers, Sancheong Hyanggyo papers, Dongyuhagan, Chosun Hanryuseungram and the record of Sawoo Munjip(anthology). Analyzed Roh Jungwoo's conversation that tells Riu Euitae is a teacher of Heo Jun and contents of an encyclopedia. Listened to testimony of descendants and assertions of historian in rural area. Verified voice recording on books taken from at birthplace and the space of activity.

Results : Yoo Itae is well shown in various records and medical writing books, whereas Riu Euitae does not. Riu Euitae is not a real person in the history. Roh Jeongwoo who asserts Riu Euitae is a teacher of Heo Jun admits his mistake. But, the encyclopedia record describing Riu Euitae is a teacher of Heo Jun, government official at Sancheong district office, historians in rural area, historians in rural area who made a family shrine, gravestone, a statue, memorial, historic site of Riu Euitae on Jinju Rui could not suggest any evidences for the existence of Riu Euitae and for record Riu Euitae is a teacher of Heo Jun.

Conclusion : Riu Euitae is neither a real person in the history nor a teacher of Heo Jun. Riu Euitae came from pronunciation confusion between 'I' and 'Eui' in Kyungsang province. Riu Euitae is Yoo Itae on Geochang Yoo who was a medical doctor of King, Sukjeong and wrote medical books including <Majinpyun>, <Silheomdanbang>, <Inseomgunyunrog>.

Key Words : Yoo Itae(劉以泰), Riu Euitae(柳義泰), Medical History,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 서 론

조선에는 수많은 名醫들이 있었다. 그 名醫들은 病魔에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여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여 왔었다. 그 名醫들 가운데에 학계와 의술활동지에서 眞僞 논쟁이 있는 名醫가 있다. 그 인물은 山淸의 名醫 유이태(劉以泰/劉爾泰)와 柳義泰 이다.

劉以(爾)泰는 실존인물로서 정유재란 시 안의 황석산성에서 순절한 의병장 劉命蓋의 玄孫이며 나라에서 복호를 받은 효자 劉有道の 손자 그리고 慶尙左水使를 지내고 嘉善大夫 兵曹判書로 증직된 李義立의 外曾孫子로서 극진한 효행과 많은 선행을 하였다. 어릴 때 병을 앓은 후 입신양명의 뜻을 접고 醫學에 뜻을 두어 의술에 정진하여 30세에 醫家로의 명성이 널리 났었다. 그에 관한 많은 名醫說話들이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그는 저서¹⁾와 문집을 남겼고 儒醫로서 醫藥同參에 참가하여 숙종대에 御

醫를 지냈고, 숙종의 병을 고친 공로로 승록대부와 안산군수를 제수 받았으나 出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²⁾. 또한, 조선왕조가 가장 두려워했던 小兒病 중 하나인 麻疹(홍역) 퇴치에 노력을 기울여 우리나라 麻疹學의 문을 열었던 조선의 名醫이다.

柳義泰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허준의 스승으로 알려진 인물로서 노정우가 전해들은 劉以泰 이야기를 박우사 『인물한국사』에 '허준 약전'³⁾을 寄稿하면서 학계에 처음 소개된 인물이다. 노정우가 쓴 「허준 약전」은 이후 각종 문헌에 인용되었고, 기존의

2) “襄陽의 늙은이는 이미 죽었는데 누가 이 사람을 龐翁(龐統)이라 하지 않겠는가?” 襄陽老舊誰是姓龐翁. 柳徠. 『劉以泰文集』.

방통 : 東漢 襄陽人으로 양양의 峴山 남쪽에 살며 몸소 농사를 지었다. 일찍이 형주자사 劉表의 부름을 거절하고 鹿門山에 은거하여 약을 캐면서 일생을 보냈다.

3) “그 할머니가 진주(晉州) 출신의 유(柳)씨인 점으로 미루어 그의 어렸을 때의 생장은 역시 경상도 산청이라고 생각된다. (중략) 그 당시 산청지방에 유의태(柳義泰)라는 신의(神醫)가 있었는데 그는 학식과 의술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인품이 호탕하고 기인(奇人)으로서 많은 일화와 전설을 남기고 있는데 이 유의태가 바로 허준의 의학적인 제질과 지식을 키워 준 스승이었다는 것이 여러 각도로 미루어 보아 부합되는 점이 있어 수궁이 간다.” 노정우. 허준. 『인물한국사』. 서울. 박우사. 1965. pp.358-359.

* 교신저자 : 김남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E-mail : southkim@khu.ac.kr

접수일(2013년 08월03일), 수정일(2013년 11월12일)

게재확정일(2013년 11월15일).

1) 『麻疹篇』, 『實驗單方』, 『麟西聞見錄』

연구 소재를 통해 허준의 스승으로 굳어진 ‘유이태’라는 인물은 소설⁴⁾과 언론매체⁵⁾를 통해 재생산되면서 실존인물 劉以泰의 정체성을 가리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허준의 스승으로 설정된 柳義泰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文化事業을 위한 素材로 활용되면서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있으며 실제 인물의 자취를 부정하는 顛倒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 인물의 行蹟이 지역사회의 文化的 自矜心을 고취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에 앞서 정확한 검증이 요구되며 만일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고 있음이 드러나면 是正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柳義泰 관련 연구의 근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柳義泰의 연구 상당부분이 허준과는 시대가 다른 劉以泰의 활동 자료들에 근거함을 확인하였다. 객관적인 검증을 생략한 한 연구자의 견해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실제 인물 劉以泰의 자취를 잠식하게 된 현실에 問題提起를 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劉以泰와 柳義泰 관련 자료들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柳義泰가 劉以泰에서 과생된 인물임을 증명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노정우의 ‘허준 약진’, 『인물백과사전』 및 명의를설화 논문들의 오류, 산청군청 당국자들과 산청군 향토사학자들의 인식,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일반에 알려진 허준 스승 柳義泰에 관한 誤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사 범위

유이태는 同音異字(意) 두 개의 漢字 이름(劉以泰.劉爾泰)을 사용하였다. 居昌劉氏家門, 『王室記錄』⁶⁾, 『劉以泰 문집』, 『유이태효행장』⁷⁾, 『사우문집』⁸⁾,

『지방지』⁹⁾, 『조선환여승람 산청군』¹⁰⁾(이하 『조선환여승람』이라 칭한다.) 그리고 향리에서는 劉以泰, 그의 저서 『麻疹篇』, 『實驗單方』, 『麟西聞見錄』에 劉爾泰를 사용하였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라 칭한다) 등 각종 명의를설화에는 한글의 유이태와 한자의 劉以泰 또는 劉爾泰로 채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이름들을 漢字 劉以泰로 표기한다.

유이태는 노정우가 쓴 박우사의 『인물한국사 허준 약진』¹¹⁾(이하 『인물한국사』라 칭한다.)에서 柳義泰, 『소설 동의보감』(이하 『소설』라 칭한다.) 및 드라마 ‘집념’, ‘동의보감’, ‘허준’ 및 ‘구암 허준’(이하 ‘드라마’라 칭한다.)에서 버들유씨 유이태, 『대계』의 명의를설화에서 유이태, 명의를설화 논문¹²⁾에서는 류의태(柳義泰)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 유이태와 류의태를 漢字 柳義泰로 표기한다.

劉以泰는 『거창유씨족보』, 『왕실기록』, 『지방지』, 『지리지』, 『劉以泰 문집』, 『증영장』, 『사우 문집』, 『동유학안』 등에서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 산청에서 의술활동을 한 것을 고증하였고, 산청군 생초면과 오부면에 거주하는 劉以泰 후손들과 인터뷰를 통하여 劉以泰가 남긴 유품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柳義泰를 학계에 처음으로 발표한 노정우와 이은성이 『소설』을 집필할 때 참여한 조선일보 前편집위원 이진섭과 대화를 통하여 柳義泰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물한국사』, 『브리태니커 세계백과사전』, 『한국인물탐사기』, 『한국역사대사전』, 『대계』, 『소설』, 『의림집』, 『구암학보』, ‘설화’, “서자는 족보에 등재되지 않는다.” 등 산청군청에서 제공한 근거와 산청 향토사학자들이 柳義泰가 실존하였다는 근거를 분석하였다. 柳義泰 관련 유적지를 만든 산청군청 문화관광과 前現職 담당자들, 柳義泰 가묘 『묘갈문』을 쓴 이천규, 『선비의 고장 산청의 명소와 이야기』¹³⁾(이하 『산청의 명소와 이야기』라

4) 『소설 동의보감』. 이은성(1937~1988, 경북 예천. 196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1975년 문화방송 ‘집념’. 창작과비평사 1990.

5) 문화방송 드라마 ‘집념’, ‘동의보감’, ‘허준’, ‘구암 허준’

6) 『속종실록』, 『승정원일기』, 『의약동참선생안』.

7) 『유이태 효행장』. 별지3. 민두참, 이조연, 오이격 등 99인이 連名한 劉以泰의 효행 및 선행 추천장. 임진(1712) 7월 초3일.

8) 『목재집』(교관 양처제 : “挽劉以泰 伯元 三首”). 『약헌집』(형조참판 송정은).

9) 『산청군지』, 『거창군지』, 『산청향교지』, 『위천면지』

10) 이병연(李秉延). 『조선환여승람 산청군』. 서울. 보문사. 1936.

11) 노정우. ‘허준’. 『인물한국사』. 서울. 박우사. 1965. pp.358~359.

12) 김명수, 이지연, 꺾익숙, 구원희.

칭한다.)를 쓴 산청의 향토사학자 손성모 그리고 柳義泰의 실존을 주장한 산청의 晉州柳氏 향토사학자 류근모와 류영춘에게 柳義泰 실존관련 고증된 근거 요청 및 대화를 통하여 柳義泰 실존과 유품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09년 산청군청에서 발간한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약 문화연구』¹⁴⁾(이하 『한의약보고서』라 칭한다.) 및 『지리산 산청 약초와 민간요법 기행』(이하 『약초보고서』라 칭한다.) 보고서 두 종류를 분석하여 오류된 내용을 고찰하였다.

劉以泰가 태어난 거창 위천면과 柳義泰가 태어났다는 산청 신안면 그리고 劉以泰 의술 활동하였던 산청 생초면과 柳義泰가 의술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하는 산청군 금서면에서 녹취된 설화를 통하여 劉以泰(또는 유의태) 名醫說話가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하였고 의술활동 지역 주변지역인 산청군 오부면과 함양군 유림면에서 劉以泰와 柳義泰의 설화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물한국사』, 『소설』, 『진주유씨족보』, 『산청의 명소와 이야기』, 柳義泰 가묘 『묘갈문』, 『산청군청 연구보고서』, 『구현희 논문』 등에서 柳義泰 생몰년도, 출생지, 의술활동지, 묘소를 비교 분석하였다.

『대계』와 『소설』을 기반으로 발표한 先行의 名醫說話 논문들은 허준 스승 柳義泰의 본관(本貫), 가계, 출생년도, 출생지에 대한 고찰이 없었기에 『晉州柳氏族譜』와 비교 고찰하였다.

『대계』, 『영남구전자료집2』, 『산청군지』, 『위천면지』, 『거창의 역사와 전설』, 『경남지방의 민담』의 柳義泰 설화가 劉以泰 설화라는 것을 분석하여 동일 인물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劉以泰와 柳義泰가 문헌에 기록된 년도 순서를 표로 정리하여 언제부터 이름이 알려진 것을 밝혔다. 劉以泰는 『거창유씨 최초족보』에 수록된 연도를 표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대계』와 『소설』의 정의설화를 주제로 발표된 先行論文들에서 劉以泰와 柳義泰의 이름과 실존 여부 고찰에 국한하였다.

13) 손성모/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 『선비의 고장 산청의 명소와 이야기』. 현대문예. 2000.

14) 『2009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약 문화연구』. 경남. 산청군청. 2009.

III. 劉以泰와 柳義泰의 비교 고찰

역사적인 특정 인물의 행적을 추적할 때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내용은 그 인물의 生沒年度, 출생지, 활동지, 묘소, 『묘갈문』, 『저서』, 유품, 親家, 外家, 妻家, 출생지 지역의 문헌 기록, 활동지의 문헌 기록, 『왕실기록』 및 『사우 문집』을 살펴보아야 한다.

1. 『人物韓國史』와 『소설 동의보감』에 柳義泰가 나타난 과정

허준의 스승은 문헌에 알려진 바가 없다. 허준의 스승으로 柳義泰를 문헌에 최초로 발표한 학자는 노정우이다. 그 역시 전해들은 산청의 神醫 劉以泰를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정황 근거만으로 柳義泰라는 인물을 허준의 스승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의 발표 이후 『인물한국사』를 기반으로 柳義泰가 허준의 스승으로 『인물백과사전』 등에 등재되었다, 또한 ‘드라마’¹⁵⁾에서 『소설』¹⁶⁾로 그리고 『소설』은 ‘드라마’¹⁷⁾로 柳義泰가 허준의 스승으로 방영되었다. 『소설』과 ‘드라마’의 영향으로 일반대중들은 柳義泰가 허준의 스승으로 알게 되어졌다. 1762년부터 2005년 이전에 晉州柳氏家門에서 발행한 모든 『族譜』¹⁸⁾에 柳義泰 등재 여부를 확인했으나 柳義泰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했다. 『소설 동의보감』 작가 이은성은 柳義泰를 허준의 스승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접촉하였으나 故人이 되어 당사자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1990년 8월 조순 이은성이 『소설』을 집필할 당시 곁에서 도운 이진섭을 만나서 柳義泰가 허준의 스승인 연유를 문의했으나 그 역시 고증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했다¹⁹⁾.

15) ‘집념’(문화방송, 방송기간 : 1975).

16)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 창작과비평. 서울. 1990.

17) ‘동의보감’(문화방송 : 1991), ‘허준’(문화방송 : 1999 ~ 2000). ‘구암 허준’(문화방송 : 2013).

18) 1762(壬午譜), 1804(甲子譜), 1845(乙巳譜), 1874(甲戌譜), 1918(戊午譜), 1934(甲戌譜), 1983(癸亥譜).

19) 창작과비평사로부터 이은성 자택 전화번호를 입수하여 1990년 8월 조순 이은성 택에 전화하여 이은성 부인과

2000년 2월 1일 조선일보 前편집위원 이진섭을 김호와 함께 만나서 『소설』의 허준 스승 柳義泰 관련 질문을 했다. 이진섭은

“소설을 쓸 때 이은성 선생과 함께 경희대를 수차례 방문했다. 이은성은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柳義泰를 사용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 줄 수 없다. 자료가 모아지면 『소설 동의보감』 후반부를 쓰고 싶다²⁰⁾”.

라고 말하였고, 그는 柳義泰가 실존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1999년 산청군청의 『한방단지 개발계획서』를 읽고 산청군청 문화관광과 담당자들에게 柳義泰는 존재하지 않았고 劉以泰만 실존하였다는 사실을 대화와 편지를 보냈으나 의견들을 반영하지 아니했다. 산청군 담당자들은 柳義泰가 실존했다고 주장하며 柳義泰 실존 근거 자료로 『소설』과 『대계』의 柳義泰 설화를 제시하였고 근거 제공자로 노정우와 한의학자 류근철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2000년 2월 1일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서 한의원을 경영하던 노정우와 대화를 나누었다. 노정우에게

“어떤 연유로 유이태(柳義泰)를 허준의 스승으로 이야기하게 된 근거가 있느냐?”고 질문하니,

통화하였다.

“나는 잘 모른다. 『소설 동의보감』을 집필할 때 이은성 선생 곁에서 도와준 조선일보 이진섭 편집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그분을 만나서 내용을 알아보라.”

1990년 8월 초순. 이은성 부인과의 대화에서.

“이은성 선생 부인께서 ‘소설을 쓸 때 이진섭 위원이 많이 도와주었다.’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하여 왔다. 산청에는 柳義泰는 없고 名醫 劉以泰는 있다. 구침지회는 巨昌劉氏 가문에 전하여 오는 劉以泰 설화이다. 柳義泰를 허준 스승으로 사용한 연유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진섭은 “『거장유씨족보』를 복사해 오라. 연도가 일치하면 柳義泰에서 劉以泰로 바꾸겠다.”라고 말하였다. 1990년 8월 중순. 조선일보 편집위원 이진섭과의 대화에서.

20) 2001년 2월 1일. 조선일보 前편집위원 이진섭과의 대화에서.

노정우는

“1965년 모백과사전²¹⁾에서 허준의 약전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허준을 연구하였다. 허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다. 족보를 조사해 본 결과 허준의 祖父가 경상우수사, 祖母가 晉州柳氏로 되어 있어 진주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진주에 거주하는 허모에게 전화하여 ‘허준의 조부가 경상우수사, 祖母가 晉州柳氏로 되어 있어 허준이 진주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였다. 진주 근처에 유명한 한의로부터 의술을 배운 것으로 판단된다. 혹시 유명한 한의가 있었느냐?’고 존재 여부를 허모에게 물었다고 하였다. 허모가 ‘산청에 수백년전부터 유이태라는 전설적인 名醫가 있었다.’고 답변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진주근처의 大姓인 ‘진주유씨(晉州柳氏)’ 의로울 ‘의(義)’ 클(泰(泰)) 유의태로 허준의 스승으로 발표하였다.”고 말하였다²²⁾.

노정우에게 柳義泰의 의술활동 및 설화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니²³⁾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사과를 한바 있다.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한 오류를 인정한다. 허준 스승은 역사학자들이 밝혀내야 할 몫이다. 居昌劉氏家門에 미안하다²⁴⁾”.

21) 박우사. 서울. 1965. pp.358~359.

22) 2000년 2월 1일 노정우와의 대화에서.

23) “저는 1951년 산청 생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생초에서 졸업하였고 外家도 산청 금서면 화계이다. 어린 시절 외가에서 많이 머물렀다. 외증조부님께서는 문집(溪軒遺稿. 姜禹欽. 1875~1946. 重齋金樞 撰 撰 編 錄. 산청 금서 화계 227)을 남기셨고, 외조부(姜德基(1899~1978, 산청 금서 화계 227)께서는 山淸鄕校 典教(1955~1956, 산청향교지. 2010. p.883)를 지내셨다.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때 외증조부님 제실(西湖齋)에서 지냈기에 외조부님, 외가 동네의 나이 많으신 할아버님들로부터 구전이야기도 들었다. 고등학교도 진주에서 나왔다. 신안면에 고등학교 동기도 있다. 1973년 타향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산청 생초에서 살았다. 어느 누구도 저에게 柳義泰 구전 설화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 산청에는 居昌劉氏 劉以泰의 구전 설화만 전해지고 있다.” 2000년 2월 1일 노정우와의 대화에서.

그러나 모든 문제의 발단을 제공한 노정우가 자신의 오류를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2. 劉以泰와 柳義泰 家系와 生涯

1) 家系

(1) 劉以泰 가계

劉以泰는 議藥同參으로 肅宗 御醫를 지냈고²⁵⁾ 숙종의 患候를 고친 功勞로 승록대부 품계와 안산군수를 받았다²⁶⁾. 그는 朝鮮王朝에서 최고의 善이었던 立身揚名 의 뜻을 접고 醫學에 입문하여 儒醫로서 일생 동안 孝行과 善行을 하였다. 자신보다는 가족, 가족보다는 他人 그리고 貴賤, 親疎, 貧富, 民官, 男女老少를 가리지 않고 오직 병든 患者를 치료하다가 생을 마감한 山淸의 名醫로서 조선왕조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무서운 병 麻疹(홍역) 전문치료서 『麻疹篇』을 최초로 저술하였다. 또한 가난하고 병든 환자를 위하여 藥을 처방할 수 있는 經驗方 醫書 『實驗單方』과 『麟西聞見錄』을 남겼으며 우리나라의 小兒學派의 麻疹學 문을 최초로 열었던 인물이다.

그의 본관은 居昌으로 始祖 문양공 劉奎²⁷⁾의 19세손이다. 10대조 劉權²⁸⁾은 고려에서 監察을 지냈고 ‘忠臣不事二君’이라고 하시며 朝鮮王朝에 出仕하지 아니했다. 9대조 劉釁²⁹⁾은 청백리로 용군현감, 8대조 劉恒³⁰⁾은 전서령겸훈련원주부, 7대조는 劉貴

孫³¹⁾은 양령대군 손서로서 증자헌대부병조판서 行어해장군용양위부호군, 6대조 劉權³²⁾은 장사랑기자전 참봉, 5대조 劉友閔³³⁾은 忠順衛彰信校衛를 지냈다. 高祖父는 정인홍³⁴⁾으로부터 사사 받았고 丁酉再亂 시 안음 현감 곽준³⁵⁾, 前함양군수 조종도³⁶⁾와 함께 안의 황석산성에서 순절한 義兵將 義士 劉名蓋³⁷⁾로 高宗으로부터 監察로 증직되었다³⁸⁾. 曾祖父

죽보』, 1988년.

31) 유귀손(劉貴孫). 通政大夫 증무위어해장군 행용양위부호군 登東儒學案登安義誌 配전주이씨 父長平副正 이혼(李訥). 祖父양령대군 이강, 曾祖공정대왕 이방원. 『거창유씨족보』, 1988년.

32) 유권(劉權). 將仕郎箕子殿參奉, 登安義誌. 妻父한양조씨 함양군수 조영손, 5대조 趙涓(1374~1429). 『거창유씨족보』, 1988년.

33) 유우민(劉友閔). 창신교위(彰信校尉). 登安義誌. 配礪山宋氏 妻父 통훈대부 宋驥. 『거창유씨족보』, 1988년.

34) 정인홍(鄭仁弘, 1535~1623). 本貫 瑞山 字 德遠 號 來庵. 陝川. 朝鮮前期 文臣. 임진왜란 영남 의병장. 합천 의병. 대사헌, 중추부동지사, 공조참판. 인목대비 폐위하여 서궁 유폐시키고 영의정 올랐다.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

35) 곽준(1551~1597). 조선 중기 문신. 本貫 玄風. 字 養靜, 號 存齋. 諡號 忠烈. 임진왜란시 의병장 김면(金沔) 의병으로 공 세움. 自如道察訪. 1594년 안음현감 1597년 정유재란 때 함양군수 趙宗道, 안음좌수 유명개와 함께 의병 규합. 黃石山城 전사. 병조참의 추증, 安義 黃巖祠, 현종 예연서원(禮淵書院) 등에 제향.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

36) 趙宗道. 1537(중종 32)~1597(선조 30). 조선 중기 문신. 본관 咸安. 字 伯由. 號 大笑軒. 諡號 忠毅. 1558년(명종 13)생원시 합격.

安奇道察訪. 柳成龍·金誠一 교유. 사도시직장·尙瑞院直長·通禮院引儀·장례원사평, 1583년 陽智縣監. 1587년 金溝縣令. 1592년 단성현감. 1596년 함양군수. 1597년 정유재란시 안음 현감 곽준, 안음좌수 유명개와 함께 의병 규합. 황석산성 수축. 방어 및 전사. 증이조판서, 함안 德巖書院, 안의 黃巖書院 제향. 저서 『대소헌집』.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37) 유명개(劉名蓋 字 顯普, 1548~1597). 贈監察, 황석산성 義兵將, 丁酉再亂 黃石山城 殉節 登承政院日記. 東國輿地勝覽. 海東三綱錄. 練察室記述. 東儒學案 安義誌. 存齋實記. 生父 友參(문과급제, 行진교양義禁府道事正德, 가정대부), 配 초계정씨(父증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경영첨찬 淑). 『거창유씨족보』, 1988.

38) “故學生 劉名蓋에게 감찰을 추증하였는데, 이상은 忠孝가 두드러지게 뛰어난 사람에게 추증하라는 전지를 받은 것이다.” 故學生 劉名蓋, 贈監察, 已上 忠孝卓異, 贈職事, 承傳. 『승정원일기』. 고종 17년 경진(1880년 5월 25일). <http://sjw.history.go.kr>

24) 2000년 2월 1일 노정우와의 대화에서.

25) “藥房入診時, 都提調李頤命(중략) 醫官金有鉉·柳瑤·丁時梯·權聖徵·李時聖·趙慶基·許坵·吳重高·方震夔·玄孝綱·玄梯綱·權聖經·劉以泰入侍.” 『승정원일기』. 숙종 40년/ 04월/09일. <http://sjw.history.go.kr>.

26) “劉以泰 安山崇祿”. 의약동참선생안. 栖碧外史海外蒐佚本 78. 『瘡疹集』의 1종.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p.520.

27) 유전(劉奎). 字 甫甫 號 竹諫. 사나라 正憲大夫 兵部尙書. 고려 문종 1082년 귀화. 『거창유씨족보』, 1988년.

28) 유권(劉權 1337~1409) 字 國老, 號 澹溪. 麗末登文科 通訓大夫司憲府監察, 登安義誌. 配강양이씨 父參判 이원달. 조선이 건국되자 “충신은 불사이군이다.” 라고 한 후 출사하지 않았다. 『거창유씨족보』, 1988년.

29) 유담(劉覃). 通訓大夫司憲府監察行龍宮縣監. 清白立生祠登安義誌 配성주이씨 父李智活(1434~?). 『거창유씨족보』, 1988년.

30) 유항(劉恒). 通訓大夫 전생서령(典牲署令) 登安義誌 配달성구씨 父제령군수 인태, 曾祖 구성로(具成老). 『거창유씨

劉義甲³⁹⁾은 出仕하지 아니했으나 타고난 기품으로 매우 아름다운 행동을 한 士人으로 『안의지』에 등재되어 있다. 祖父 劉有道⁴⁰⁾는 정온⁴¹⁾의 제자로서 통정대부 兪知이며 孝子로써 나라에서 복호를 받았고 『동국여지승람』⁴²⁾ 및 『안의읍지』⁴³⁾에 등재되어 있다. 부친 유윤기⁴⁴⁾는 통정대부 護軍이다. 先代들의 묘소들은 위천면 황산 선영에 있다⁴⁵⁾. 외가는 강양이씨로서 山淸 生草 新淵이다. 外曾祖父는 정유제란 시 曠재우와 倡義한 의병장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出仕 후 유효립 난을 평정하여 寧社功臣一等으로 초계군수와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지냈고 가선대부 병조판서로 추증된 李義立⁴⁶⁾이고 外祖父는 조산대부 奉常寺 判官 李光勳⁴⁷⁾이다. 처가는 昌寧曹氏로 居昌

渭川이다. 妻祖父는 단양군수를 지낸 조근수⁴⁸⁾이고 妻父는 성현도찰방을 지낸 조익희⁴⁹⁾이다. 친가, 외가, 처가 등은 산청, 거창 등 서부 경남 등에서 오랫동안 鄕班의 지위를 누리던 가문으로 추정되어진다.

(2) 柳義泰 가계

柳義泰의 本貫을 晉州柳氏라고 밝힌 것이 아니고 柳氏라고 밝혔고 허준의 할머니가 晉州柳氏라고 『인물한국사』에 기록되어 있다⁵⁰⁾. 또한 『소설』에도 본관에 대한 언급은 없고 ‘버들유씨’로 기록되어 있다⁵¹⁾.

<표1>에서 『인물한국사』에는 祖父, 父親 등 先代와 아들 그리고 妻의 이름이 없었으나 『소설』에는 祖父가 유술이⁵²⁾, 父親은 유흥업⁵³⁾, 아들은 유도지⁵⁴⁾ 그리고 妻는 오씨⁵⁵⁾로 기록되어 있다. 1762년부터 1983년에 발행한 『晉州柳氏族譜』⁵⁶⁾에는 柳

39) 유의갑(劉義甲). 字 制初. 天稟純美志行耿介. 『登安義誌』.
40) 유유도(劉有道 1600~1683). 字 子見, 號 離灘, 孝行純至 官兪知 自朝家有復戶典 登東國輿地勝覽 정은 제자. 寒岡鄭述 문하.
41) 鄭縝. 1569~1641, 본관 草溪 字 輝遠, 號 桐溪·鼓鼓子 시호文簡. 거창 위천. 父 진사 鄭惟明. 남명 조식 학맥. 1610년 진사 문과 급제. 說書·사서·정언·副司直·헌납·사간·이조참의·대사간·경상도관찰사·부제학. 1636년(인조14) 병자호란 때 이조참판. 廣州 顯節祠, 제주 橋林서원, 咸陽 藍溪서원 제향. 저서 『桐溪文集』. 『초계정씨족보 권1』, p.13.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
42) 『거창유씨족보』에는 『동국여지승람』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신동국여지승람』에는 보이지 않는다.
43) “義士 名蓋의 손자이다. 십삼세에 아버님의 상고를 만나 靨연을 떠나지 아니하고 菜果를 먹지 아니하였으며 어머니를 받드는데 정성을 다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삼년동안 피눈물로 울었으므로 정려를 명하고 복호(復戶)를 하였다.” 義士名蓋孫十三歲遭父喪不離几筵不食菜果奉母竭誠母沒泣血三年命旌復戶. 『안의향교지』, 경남. 안의향교, 2009. p.949.962.
44) 劉潤祺. 通政大夫 護軍. 登安義誌. 配강양이씨. 妻父 조산대부 奉常寺 判官 光勳. 妻祖父 자헌대부 증병조판서 行慶尙左水使義立. 『거창유씨족보』, 1988.
45)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15번지.
46) 李義立(1562년(명종17)~1642년(인조20)). 조선 중기 무신. 本貫 江陽. 字 直甫. 山陰 출신. 父 增判曹參判 李蘭春, 母 朴英俊 딸. 임진왜란시 曠재우와 倡義 의병활동. 1594년(선조27) 무과 급제. 1622년(광해군14) 전라도우후(全羅道虞候), 인조반정 후 중앙무관직 역임. 李元翼洪瑞鳳·具仁星 시중. 1627년(인조 5) 郞將, 柳孝立·鄭心 모반사건 寧社原從功臣 1등 및 철지중추부사. 1636년 병자호란 한성방어 책임자. 초계군수시 민폐를 제거하고 담관오리를 응징하는 등 많은 치적 남김. 초계현감. 가선대부 경상좌도수군절도사. 증병조판서겸동지의금부사. 『합천이씨 문간공파세보』, p.4. 『네이버백과』, <http://terms.naver.com>

47) 이광훈(광해5년~숙종14년). 字 자익. 號 龔窩. 朝散大夫 奉常寺判官. 『합천이씨 문간공파 세보』, p.4.
48) 曹崑壽. 字 頤叟 奉直郎 丹陽郡守 창령조씨. 『忠翊公文澤派族譜』, p.3.
49) 曹益暉(1616~1669). 字 子文. 奉直郎 省峴道 察訪 창령조씨. 『忠翊公文澤派族譜』, pp.3~4.
50) 허준의 할아버지가 (중략), 그 할머니가 진주(晉州) 출신의 유(柳)씨인 점으로 미루어 (중략). 더욱이 당시로부터 근세까지도 허·유 양씨가 그 지방의 쌍벽인 대성(大姓)이었던 사실과 그 당시 산청지방에 유의태(柳義泰)라는 신의(神醫)가 있었는데 그는 학식과 의술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인품이 호탕하고 기인(奇人)으로서 많은 일화와 전설을 남기고 있는데 이 유의태가 바로 허준의 의학적인 재질과 지식을 키워 준 스승이었다는 것이 여러 각도로 미루어 보아 부합되는 점이 있어 수궁이 간다. (하략). 노정우, 허준. 『인물한국사』, 서울. 박우사, 1965. pp.358~359.
51) “버들유(柳) 올을의(義) 클태(泰)의 유의태라는 함자이옵니다.”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 상권』,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0. p.47.
52) “일대 유술이(柳術而)”.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 중권』,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0. p.151.
53) “이대(二大 : 柳義泰의 생부) 유홍삼(柳興三)”.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 중권』,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0. p.152.
54) “유도지”.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 상권』,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0. p.100.
55) “오씨”.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 상권』,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0. p.141.
56) 1762(壬午譜), 1804(甲子譜), 1845(乙巳譜), 1874(甲戌

<표1. 『晉州柳氏族譜』, 『가묘 묘갈문』, 『인물한국사』 및 『소설』 柳義泰 가계 비교표>

족보 발행년도	1762/1804/1845/1874/1918/1934/1983	2005년	2005년	1965년	1990년	
출 전	『晉州柳氏族譜』	『晉州柳氏族譜』	柳義泰	『인물 한국사』	『소설 동의보감』	
족보명	1762(壬午譜) ~ 1983(癸亥譜)	2005(乙酉譜)	가묘 묘갈문	柳氏	버들유씨	
본 관	晉州柳氏	晉州柳氏	晉州柳氏	柳氏	버들유씨	
증조부	柳從	柳從	-	-	-	
조 부	柳池	柳池	柳池	-	柳述而	
부 친	柳應星	柳應星	-	-	柳興三	
본 인	柳霧	柳雲	柳霧	柳義泰	柳義泰	
아 들	文虎	后无	文虎	后无	-	柳道知
妻	-	-	-	-	-	오씨
庶 子	-	-	-	庶子	-	

義泰가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에 2005년에 발행한 『晉州柳氏大司成派族譜』에는 『소설』에 등장하는 조부 柳述而, 부친 柳興三, 아들 柳道知와 妻 吳氏는 登載되어 있지 않았고 증조부는 柳從, 祖父는 柳池⁵⁷⁾, 父親은 柳應星⁵⁸⁾, 柳義泰는 柳霽⁵⁹⁾ 그리고 伯父는 柳夢星⁶⁰⁾으로 바꾸어 등재되어 있으며 후사(後嗣)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⁶¹⁾. 『墓碣文』을 작성할 때 성명, 字, 號, 生沒年度, 아들, 손자 등 親家, 外家, 妻家의 家系를 기록하는 것이 慣例이나 2005년에 만든 柳義泰 가묘 『墓碣文』에 親家의 父親 이름, 아들, 손자, 外家, 妻家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⁶²⁾. 더욱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부친의

이름은 없고 백부의 이름이 『墓碣文』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晉州柳氏에서 발행한 최초 족보에서부터 2005년 이전에 발행한 모든 족보에 柳義泰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晉州柳氏 家門에서 『소설』과 ‘드라마’의 영향으로 柳義泰를 허준의 스승으로 만들기 위하여 2005년 『晉州柳氏乙酉譜』에 後嗣가 없는 柳雲(일명 柳義泰)으로 바꾸어 등재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따라서 柳義泰가 실존했다는 『晉州柳氏族譜』에 등재된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2) 生沒年度, 出生地, 醫術活動地, 官職, 墓所 및 『墓碣文』

(1) 劉以(爾)泰의 生沒年度, 出生지, 醫術활동지, 官職, 묘소 및 『묘갈문』

劉以泰는 1652⁶³⁾년 居昌 위친 司馬里에서 태어나 10세 전후에 外家가 있는 山淸 生草 新淵으로

선생이 우리 조상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와 조사했다"며 "이렇다 할 문헌은 없어도 설화나 상황적 요인을 볼 때 우리 조상이라는 판단이 들어 족보에 올랐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족보에 오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혹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기록이 없다고 조상이 아니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 않으나"고 했다. 『조선일보』 2009년 12월 19일 기사.

63) 족보에는 生年이 없으나 문집에 出生年度를 감안한 글이 있다. “운수가 64세에 다하였으니 어찌 백세에 이르지 못했는가?” “有數窮八八 胡不能期” 참봉 정중원. 『劉以泰文集』. “몰년은 1715년이다. 1715-64 = 1651-1(태어난년 1살)=1652” 유철호, 김남일. 『癩疹篇』 저자와 저술시기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2 제25권 2호. p.148.

譜), 1918(戊午譜), 1934(甲戌譜), 1983(癸亥譜).
57) 柳池. 생 세조신사(146).卒 전하지 않음. 忠贊衛의 展力 副尉(종9품)를 지내심. 『晉州柳氏世譜 을유보 권1』. 2005. p.201.
58) 柳應星. 문학을 잘하시기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셨다. 묘 : 두 분 모두 임란으로 실진. 『晉州柳氏世譜 을유보 권1』. 2005. p.201.
59) 柳雲. 일명 의태(義泰). 허준의 스승. 경남 산청군 금서면 특리 한방승지내 류의태 약수터 필봉산 능선유함. 『晉州柳氏世譜 을유보 권1』. 2005. p.201.
60) 柳夢星. 충순위 어모장군(忠順衛 禦侮將軍.정3품下)을 지 내심. ○공은 문학과 행의로 당세에 유명하셨다 벼슬직함 은 안동부(安東府)에 소장된 명부에 의해 적어 넣었다. 『晉州柳氏世譜 을유보 권1』. 2005. p.200.
61) 『晉州柳氏世譜 을유보 권1』. 2005. pp.200~201.
62) <별지3. 神醫柳義泰先生墓碣文>
• 晉州柳氏 가문 류진상(대구 거주)이 필자와 전화 통화에서 류의태를 족보에 등재한 것에 대하여 “족보를 변경하였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2013년 6월 4일, 5일, 6일 전화통화시.
진주유씨 종친 류보형(84)씨는 "드라마가 나오고 '류의태

移居하였다⁶⁴). 어릴 때 미진을 앓고 난 후⁶⁵) 立身揚名의 뜻을 접고⁶⁶) 醫術에 정진하여 의술이 경지에 도달한 후 일생동안 병든 많은 환자들을 구하였다⁶⁷). 祖父 生前의 젊은 시절에는 부친과 함께 山淸 生草와 居昌 渭川을 僑居하였고⁶⁸) 祖父가 세상을 떠난 후 山淸 生草에만 거주하면서 仁術을 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⁶⁹). 『居昌劉氏族譜』에는 중국 황제를 치료한 공로로 금좌광록대부 이부상서 관직을 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⁷⁰). 그러나 묘갈문에는 관직은 통덕랑으로 기록되어 있다⁷¹).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에는 숙종 39년(1713년 癸巳年) 肅宗 병이 위중했을 때 議藥同參에 참가⁷²)

하여 儒醫로서 御醫⁷³)를 지냈고 도수환(導水丸)⁷⁴)으로 숙종의 병환을 고친⁷⁵) 功勞로 승록대부 품계와 안산군수를 받은 것으로 『왕실기록』에 기록되어 있다⁷⁶). 그는 1715년卒하였고 『거창유씨족보』와 『조선환여승람』⁷⁷)에 劉以泰 묘는 산청 생초 갈전 명주동⁷⁸)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⁷⁹). 劉以泰가 名醫로서의 높은 명망은 『조선환여승람』⁸⁰), 『산청군지』⁸¹), 『산청군지 속편』⁸²), 『산청향교

- 64) 모친 강양이씨의 묘소는 외증조부(이의립) 묘소 아래 있었다. 2010년 부친 묘소 옆으로 이장되어 있다. “일찍이 10여세에 어머니 상을 당하자 주야로 애통해하고 삼년간의 제사 의례를 예절에 맞추었으니 나물과 과실도 먹지 않고 여막(廬幕)을 떠나지 않은 것은 나이든 선비나 학식 있는 유자(儒者)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못할 정도였다.” “而曾在十餘歲 喪其慈母 晝夜哀慟 三年祭儀 固執禮節 不食菜果 不離廬所 雖老士宿儒 亦無加矣.” 민두삼의 99명. 『유이태효행장』.
- 65) “어릴 적에 우환을 겪은 후 팔을 꺾어 의사가 되리라고 결심하였다.” “少緣疾災在 折臂悟成醫” 참봉 정중원. 『劉以泰文集』.
- 66) “이름은 서술에 까지 떨쳐 누구나 경모했네. 편작이나 俞跗와 같이 보지 않는 자가 없으니, 나라를 고치겠다는 뜻을 접고 사람을 고쳤네.” “名震京鄉景慕均 莫以扁俞看此老 志華醫國試醫人 權萬績.” 『유이태 문집』. 權萬績 (1652~?), 字 熙卿, 通德郎. 『안동권씨 북아공파 족보 2권』. 1980. p.18.
- 67)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뜻을 가지니, 노력하여도 피로를 알지 못하였다.” “大抵救人志, 努力不知疲” 참봉 정중원. 『劉以泰文集』.
- 68) “渭陽(위천 옛이름)에 僑居하며.” “渭陽僑寓”. 권희. 『劉以泰文集』.
- 69) “이름을 날리지 어언 30년에 얼마나 많은 몸은 은혜 베풀었나? 사람들이 말하길 의술이 참으로 의절구나. 금세에 누가 다시 이런 인술을 퍼졌는가?” “得名三十載 恩遍幾人肌. 咸曰此術仁 今世更有誰” 참봉 정중원. 『劉以泰文集』.
- 70) 『거창유씨세보 권1』. 1988. p.24.
- 71) 『거창유씨세보 권1』. 1988. pp.24~25.
- 72) 『숙종실록 숙종 54권』. 숙종 39년(1713) 12월 16일. <http://sillok.history.go.kr>. 『승정원일기』. 숙종 39년(1713) 12월 16일. <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숙종 39년(1713) 12월 20일. <http://sjw.history.go.kr>.

- 73) “藥房入診時, 都提調李頤命(중략)醫官金有鉉·柳瑠·丁時梯·權聖徵·李時聖·趙慶基·許坵·吳重高·方震夔·玄孝綱·玄梯綱·權經·劉以泰入侍.” 『승정원일기』. 숙종 40년 04월 09일. <http://sjw.history.go.kr>.
- 74) ① 治一切濕熱鬱滯, 能宣通氣血. 黑丑頭末, 滑石各四兩, 大黃, 黃芩各二兩. 右末, 水丸小豆大, 溫水下十丸至十五丸, 以利爲度. 一名藏用丸, 一名顯仁丸. 『宣明』② 加入法, 濕熱腰痛, 或久雨, 加甘遂, 遍身走注腫痛, 加白芥子, 熱毒腫痛, 久旱, 加朴硝, 氣血滯, 腸胃秘澀, 加郁李仁, 腰腿沈重, 加商陸. 『入門』. 『동의보감 東醫寶鑑雜病篇卷之一』. 경남. 동의보감출판사. 2005. p.980.
- 75) “西班牙의 보직을 받고 내의원의 일을 돕는 책임을 맡아 국궁하고 약의 순서를 의논하였다. 근심은 날마다 더욱 깊어갔는데 導水丸이라는 기이한 처방을 내놓아 참으로 적임의 일을 하였다. 그러나 여러 老醫들이 주저하며 결정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였다. 이윽고 공자에게 의뢰하여 시험하였는데 화기가 눈썹에 돌아왔으니 金貂를 상으로 내리고 노고에 대한 보상은 한 필의 말을 받았다.” 참봉 정중원. 『유이태 문집』. “遂許西班牙補責以內院裨 鞠躬議藥列 憂悴日夜寒 奇方導水丸 見露穎囊錐 婢嬰諸老醫 疑忖久相持 仰試賴公子 和氣面彩眉 上賞歸金貂 再勞酬四騎.”
- 76) “劉以泰 安山崇祿”. 의약동참선생안. 栖碧外史海外蒐佚本 78. 『瘡疹集』외1종.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p.520.
- 77) 이병연(李秉延). 『조선환여승람 산청군 명망』. 서울. 보문사. 1936.
- 78) ‘경남 산청군 생초면 갈전리 산35-1 번지.’ 월곡 후손 劉鍾閔 소유에서 宗孫 유금돌로 소유로 1971년 명의(名義)가 변경되어 있다.
- 79) “見名望篇墓在生草面明珠洞戊坐”. 이병연(李秉延). 『조선환여승람 산청군 명묘』. 서울. 보문사. 1936.
- 80) “자는 백원 호는 신연당 거창인 문양공 유전의 후손이다. 재예가 절륜하고 행동도 하였다. 의술이 방통하여 크게 알려져 사람들의 추천으로 청나라를 방문하여 황제의 병을 치료하였다. 황제가 높은 관직을 주었으나 고사하고 돌아왔다. 효행이 높고 유명하여 향리 사수들의 포상장이 있고 벼슬은 통덕랑이다.” “字伯源號新淵堂巨昌人文襄公劉荃后才藝絕倫篤行實踐傍通醫學大鳴于世薦入清朝治療帝病因授重官固辭不受而還以孝行純至著名鄉道褒狀官通德郎.” 이병연(李秉延). 『조선환여승람 산청군 명망』. 서울. 보문사. 1936. 명망.
- 81) “자는 伯源, 號는 新淵堂이다. 生草에 살았다. 權의 10세

지』⁸³⁾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의 효행⁸⁴⁾과 덕망⁸⁵⁾은 오랫동안 전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전해지고 있다. 그의 향약 처방⁸⁶⁾들과 설화들은 가문과 산청지방에 전해져 왔었던 것으로 나타

나 있다. 그가 의술활동을 했던 집은 다른 사람의 소유⁸⁷⁾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산청군 생초면과 오부면에 살고 있어 劉以泰의 주된 활동지는 山淸 生草이다.

- 손이다. 蔭仕『山淸郷校誌』『산청군지 제5편 성씨와 인물』, 산청문화원. 경남. 2006. p.994.
- 82) “거장인으로 호는 신연당이고 관은 통덕랑이다. 제에가 뛰어나고 학문을 즐겼고 총명하며 의학이 뛰어나 명성이 높아 그 당시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중국에 들어가 황제를 치료하였다. 높은 관직을 고사 후 귀국하였고 효행이 널리 알려졌다.” “巨昌人號新淵堂官通德郎才藝絕倫好學妍精通于醫學聲聞當世薦入中國治皇帝病因授重官固辭不受而還以孝行聞” 『산청군지 속편』.
- 83) “居昌人, 號는 新淵堂. 官은 通德郎 才藝가 節倫하여 好學하고 妍精(연정)通于하며, 醫學에 聲聞하여 當年 薦薦을 받아 中國에 들어가 靑皇帝를 治病하고 重官도 固辭하고 歸家하여 孝行했다.” 『산청향교지 제7편 인물』, 산청향교. 경남. 2010. p.782.
- 84) “향리의 사람들이 탄복치 아니한 사람이 없었으며 그 타고난 효심을 칭송하였다.” “鄉里之人 無不歎服 而稱其天性之孝” 민두잡의 99명. 『유이태 효행장』.
- 85) “유선생은 우리 조선반도의 명이다. 세상을 떠난지 몇 백년이나 되었는데도 천민이나 아이들까지 아직도 그의 명성을 말하고 있으니 당시 선생의 덕망과 의술을 상상할 수 있다.” (중략) 경오년 동지달 후학 박주현 씀. 『마진편 발간문』, 진주. 회춘헌약방. 1934. “劉先生卽我朝鮮半島之名醫也沒後幾百年與擡兒童尙稱其名當時先生之德廣術高下想之然 (중략) 庚午至月後學朴周憲謹記”.
- 86) “劉以泰 處方”. 고증 : 강무성(1918 ~ 2013).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화계 경모재. 1999년 3월 27일. 강무성과의 대화에서.
 • “노루목 이종 당숙부(허씨)가 머리에 난 커다란 종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유이태 처방인 밥을 종기에 붙였다니 종기 부위가 빠졌다.” • “곱새 열구리의 종기에 밥을 붙여서 완쾌시켰다.” • “장동 권약국이 강창효 모친 오른쪽 귓 이중에 왼쪽 손바닥에 알밤을 씹어서 부엌터니 귓 이종 완쾌하였다.” • “아버지가 밥을 드시지 못하여 장독대 옆의 앵두를 많이 드신 후 식욕이 돌아 왔다.”
 • “치통이 났을 때”. 고증 : 김점달(1930 ~ 2012. 10월). 산청군 생초면 월곡리 압수마을. 2012년 4월 15일 김점달과의 대화.
 • “마른 송진을 가루 내어 치아를 닦았다.”
 • “땡자나무를 잘게 자른 후 달인 물을 입에 머금었다.”
 • “풍치에 꿀을 입안에 머금었다.”
 • “봉사 달인 물을 입안에 머금었다.”
 • “시집오니 시할머님, 작은집 시할머님, 시어머님, 큰집 시어머님, 작은집 시어머님, 큰집 동서 모두 개고기를 먹었다. 윗대부터 머느리들이 시집오면 여자들 몸에 좋다고 개고기를 먹었다. 먹지 못하는 머느리들이 없고, 딸들도 마찬가지이다.”
 고증 : 2012년 4월 15일 강점이. 김점달과의 대화에서.

(2) 柳義泰 생몰년도, 출생지, 의술활동지, 官職, 묘소 및 墓碣文

<표2>에서 柳義泰 생몰년도와 출생지는 1762년부터 2005년 이전에 발행한 『晉州柳氏族譜』⁸⁸⁾, 『인물한국사』⁸⁹⁾ 그리고 『인물백과사전』⁹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산청의 명소와 이야기』, 『구현회 논문』⁹¹⁾, 『한의약보고서』⁹²⁾, 산청박물관⁹³⁾,

- 87)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679번지. 소유주 : 한성영.
 88) 1762(壬午譜), 1804(甲子譜), 1845(乙巳譜), 1874(甲戌譜), 1918(戊午譜), 1934년(甲戌譜), 1983(癸亥譜).
 89) “그 할머니가 진주(晉州) 출신의 유(柳)씨인 점으로 미루어 그의 어렸을 때의 생장은 역시 경상도 산청이라고 생각된다. (중략) 그 당시 산청지방에 유의태(柳義泰)라는 신의(神醫)가 있었는데 그는 학식과 의술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인품이 호탕하고 기인(奇人)으로서 많은 일화와 전설을 남기고 있는데 이 유의태가 바로 허준의 의학적인 제질과 지식을 키워 준 스승이었다는 것이 여러 각도로 미루어 보아 부합되는 점이 있어 수긍이 간다.” 노정우. 『인물한국사』. 서울. 박우사. 1965. pp.358~359.
 90) 『브리태니커 세계백과사전』, 『한국인물탐사기』, 『한국역사대사전』.
 91) “柳義泰는 1516년(중종11년).”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名醫 柳義泰의 자취 연구’ 『영남학 제16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원. 2009. p.383.
 “당대의 최고 신의로 알려졌던 柳義泰(1516년, 중종11년 출생).”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에 나타난 의학적 처치의 사실성과 의미-류의태 의료설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의사학회지』. 2009. 제23 권1호. p.12.
 92) “유의태는 1516년(중종11년) 산청군 신안면 상정마을에서 출생하였고, 당대 최고의 신의로 알려져 있으며 금서면 화계 지구에서 의술활동을 하였다.” 『2009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약 문화연구』. 경남. 산청군청. 2009년. p.73.
 93) “조선시대(중종~선조)의 명의로 당대 제일의 하늘이 내린 신의로 칭송받았다. 선생은 신안면 하정리 상정에서 출생하여 금서면 화계 마을을 근거지로 의술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 바탕을 두어 의술을 제자 허준(동의보감 저자)에게 가르치고 자신의 몸을 해부용으로 제공한 살신성인을 실천한 스승으로 회자되고 있다. 또한 선생이 한방제소에 사용하였다고 전해오는 류의태 약수터도 왕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애용하고 있다.”

<표2. 柳義泰 生沒年度, 出生地 및 醫術 活動地 비교표>

구 분	『晉州柳氏 族譜』	『晉州柳氏 乙酉譜』	『한국 인물사』	『소설』	산청의 명소와 이야기	柳義泰 가묘 묘갈문	『한의약 보고서』	구현회 논문
발행년도	1762(壬午譜)~ 1983(癸亥譜)	2005	1965	1990	2000	2005	2009	2009
생몰년도	-	-	-	-	1516 출생	1516~1580	1516 출생	1516 출생
출생지	-	-	-	-	신안 상정	신안 상정	신안 상정	신안 상정
활동지	-	-	산음	금서 화계	금서 화계	금서 화계	금서 화계	금서 화계

산청한의학박물관⁹⁴)에 출생년도(1516)와 출생지(신안 상정)를 밝혔다. 柳義泰 가묘 『묘갈문』에 생몰년도(1516~1580)가 기록되어 있다.

『산청의 명소와 이야기』 저자 손성모, 『한의약보고서』 발행처 산청군청 당국자와 先行研究者 구현회에 柳義泰 출생년도와 출생지, 柳義泰 가묘 『묘갈문』 글쓴이 이천규에게 생몰연도와 출생지의 근거를 요청했으나 보내오지 아니했다. 柳義泰 의술활동지는 『인물한국사』에 ‘산음’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소설』, 『산청의 명소와 이야기』, 柳義泰 가묘 『묘갈문』, 『한의약보고서』, 『구현회 논문』에는 ‘산청 금서 화계’로 기록되어 있다. 산청군 금서면과 인근지역을 방문⁹⁵)하여 柳義泰가 금서면 화계에서 의술활동 장소 및 구전설화를 조사하였으나 의술 활동 장소 및 설화를 채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柳義泰가 산청 금서에서 의술활동을 한 근거가 없다고 보여 진다. 또한 柳義泰 가묘 『묘갈문』에는 柳義泰가 “산청 신안 상정에서 晉州柳氏 유지(柳誼), 유몽성(柳夢星)의 집안 庶子로 1516년 태어나서 1580년 세상을 떠났고 『소설』과 허준 ‘드라마’에 따라 재조명한다.”로 기록되어 있다⁹⁶). 柳義泰 가묘 『묘갈문』에는 『인물한국사』와 『晉州柳氏族譜』에 없었던 사실을 『드라마』에 바탕을 두고 새로이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⁹⁷).

<표3>에서 柳義泰 묘소는 1762년부터 1983년까지 발행한 『晉州柳氏族譜』⁹⁸), 『인물한국사』와 『소설』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에 2005년 발행된 『晉州柳氏乙酉譜』와 柳義泰 가묘 『묘갈문』에 ‘산청 금서 특리 한방단지’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지방지』⁹⁹)와 『지리지』¹⁰⁰) 등에 柳義泰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산청군청 관계자들과 향토사학자 등에게 柳義泰의 생몰년도, 출생지, 족보, 묘소 등 고증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¹⁰¹) 이들로부

정리 상정(당시지명 산음현 정태)에서 진주류씨(晉州柳氏) 十三世조(池 一四六一年生) 十四世조(夢星一四八五年生) 집안의 서자 신분으로 출생하여 서기 一五八〇년에 별세한 것으로 전해 오고 있으나 정각 류씨 집안의 족보에는 흔적이 없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 양반은 의술을 공부하지 않았고 서자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찾아보기 더욱 어렵다. (중략) 그동안 서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선생의 업적을 발굴하는데 소홀했으나 최근 방송국에서 동의보감 허준 드라마가 방영되고 허준의 스승인 류의태 선생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선생의 행적이 재조명되고 특히 산청군이 이곳 전통 한방휴양관광지에 선생의 단소(壇所)를 마련하여 류의태 선생의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높이 기리고자 함은 꼭 다행스런 일로 여겨진다. 이 글은 현재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정태에 사는 진주류씨 가문의 柳根機씨가 이 고장의 사학자이고 함양사천 통영군수와 경상남도사편찬위원장 중앙문화재전문위원을 역임하신 梧木 金相朝님과 지방사학자이며 한약방을 운영하신 故권재우님과 故강연우 류영춘 류무림님의 조언과 진주류씨 족보를 바탕으로 초안해 온 것을 첨삭하여 정리하여 비문을 작성하였다.” 출전 : <별지3. 神醫柳義泰先生墓碑文>.

94) “류의태 柳義泰. 1516년(중종 11년) 신안면 상정마을에서 출생. 당대 최고의 신의(神醫)로 알려져 있으며 금서면 화계 지구에서 의술 활동을 하였다. 허준의 스승으로 몸을 제자 허준에게 시술토록 하여 해부의학의 효시를 이룬 살신성인의 의술가였다.”
95) 산청군 산청읍, 생초면, 오부면. 함양군 유림면, 휴천면. 방문기간 : 2000년 3월 ~ 2006년 4월.
96) 가묘 『묘갈문』. <별지3. 神醫柳義泰先生墓碑文>.
97) “류의태 선생은 서기 一五一六年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

98) 1762(壬午譜), 1804(甲子譜), 1845(乙巳譜), 1874(甲戌譜), 1918(戊午譜), 1934(甲戌譜), 1983(癸亥譜).
99) 『산청군지』, 『산청향교지』, 『단성향교지』.
100) 『조선환려승람 산청편』.
101) 조성제 문화관광과장(2012년 4월 12일/4월 26일). 김동환 前문화관광과장(2013년 1월 03일/2월 28일). 이천규 산청교육청 前장학사(2012년 4월 16일/26일). 류근모 진주류씨 향토사학자(2012년 4월 18일/4월 26일/5월 07일). 류영춘 진주류씨 향토사학자(2013년 8월 19일). 손

<표3. 柳義泰 묘소 所在地 비교표>

구 분	『晉州柳氏族譜』	『晉州柳氏乙酉譜』	『한국인물사』	『소설』	『산청의 명소와 이야기』	柳義泰 가묘 『묘갈문』	『한의약 보고서』	『구현회 논문』
발행년도	1762(壬午譜)~1983(癸亥譜)	2005	1965	1990	2000	2005	2009	2009
묘소위치	-	한방단지	-	-	-	한방단지	-	-

더 고증된 근거 자료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柳義泰가 실존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3) 著書 및 遺品

(1) 劉以泰 著書 및 遺品

劉以泰는 『麻疹篇』, 『實驗單方』, 『麟西聞見錄』, 『처방전』¹⁰²⁾, 『침술서』¹⁰³⁾, 『婦人科 의서』¹⁰⁴⁾, 의술 도구¹⁰⁵⁾ 그리고 劉以泰 후손의 허락 없이 가져간 저서 『OOO』^{2권}¹⁰⁶⁾, 『劉以泰文集』, 『劉以泰孝行狀』¹⁰⁷⁾ 등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劉以泰文集』에는 여러 사우¹⁰⁸⁾들의 글과 정유재란 義兵將 高祖父, 孝子 祖父에 대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劉以泰孝行狀』은 劉以泰의 효행과 선행을 기록하여 99명이 연명하여 예조에 올린 『推薦狀』이다.

『麻疹篇』¹⁰⁹⁾은 임서봉의 『壬申疹疫方』¹¹⁰⁾, 이현

길의 『麻疹奇方』(1759), 정약용의 『麻科會通』(1797) 보다 비교적 앞선 시기에 저술한 우리나라의 최초 麻疹 專門治療書이다. 『麻疹篇』은 필사본으로 전해져 오던 것을 劉以泰 후손이 진주 회춘헌 약방 박주헌에게 전해져서 진주에서 출판되었다¹¹¹⁾. 『麻疹篇』은 1680년과 1692년 조선 전역을 휩쓸었던 麻疹에 대한 실증적인 관찰기록을 담고 있고 麻疹에 대한 독창적인 醫學觀을 주창하고 있다. 그는 痘와 麻疹의 증세는 유사하다고 하였으며 痘는 陰에 속하고 臟에 일어나는데 반해 疹은 陽에 속하고 腑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陰陽은 熱症이나 아니냐를 나타낸 것이고, 臟腑는 질병이 생기는 근원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疹이 痘와 달리 熱症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麻疹篇』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국가도서관과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대학교 도서관 등에서 소장¹¹²⁾ 하고 있으며 서울대

성모 산청 향토사학자(2013년 9월 10일/9월 25일).

102) 劉以泰 9대 종손 유금돌(1917~2002, 경남 산청군 오부면 북동리 북동). “1940년대 초반 화재로 없어졌다.”

103) 劉以泰 9대 종손 유금돌(1917~2002, 경남 산청군 오부면 북동리 북동). “1940년대 초반 화재로 없어졌다.”

104) 劉以泰 9대 종손 유금돌(1917~2002, 경남 산청군 오부면 북동리 북동). “1940년대 초반 화재로 없어졌다.”

105) 劉以泰 9대 종손 유금돌(1917~2002, 경남 산청군 오부면 북동리 북동). “1940년대 초반 화재로 없어졌다.”

106) 1975년 대학교수라 칭한 두 분이 생초 신연 송정의 유학선 집을 방문하여 가져갔다.

107) 『효행장』. 민두삼, 이초연, 오이격 등 99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劉以泰 효행 및 선행 추천장. 임진(1712) 7월 초3일. <별지3>.

108) 승지 한배하, 한성좌운 조태로, 도정 이명협, 진사 柳徠, 참봉 정중원, 활방 이세일, 고관 양치제,.....

109) 『麻疹篇』: 홍역전문치료서. 회춘헌약방. 진주. 1931년.

110) 『임신진역방』: 저술년도가 확실하지 않다. 임서봉은 1669~1672년 년간에 태어나 戊申亂에 연루되어 1728년 죽었다. 그가 죽은 이후 1752년에 임신진역방을 저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임서봉 아들 임응희(죽보명 瑁)가 부친 이름으로 임신진역방을 저술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둘째 간지 오기를 생각할 수 있다. 임서봉이 의술 경지에 오른 50세 전후반에 저술할 수

있고 1718년 무술년 마진이 크게 유행했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1722년(壬寅年) 저술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111) 박주헌. 『마진편 발간사』. <별지.2>. 경남. 회춘헌 약방. 1934년.

“지금부터 20여년전 어떤 손님이 나를 찾아와 한권의 책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 선조의 유적이며 의원에게는 참으로 귀중한 것이므로 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오. 나는 불초한 후손으로 집안은 가난하고 무식하오 그러나 선조의 유고가 어떤 물건인데 만지 쌓인 상자에 넣어두어 날고 좀 먹은 책이 되게 하겠소. 만약 집안에서 보존할 수 없을 것이라면 차라리 뜻있는 의원에게 주는 것이 나을 것이니 오늘 특별히 선생을 만나러 온 것이오. 라고 하였다. (후략) 경오년 동지달 후학 박주헌 씀”

“自茲二十餘年前客有過我袖示一券書曰比卽吾先祖之遺蹟眞醫家之所貴重故來傳於子而如我不肖後裔家貧農學先世遺稿未知何等件物 拖置塵箱竟屬完篇蠹章而已如其不得家藏不若歸之於謹愼醫家今日特來見子云矣余聞”(후략). 午至月後學朴周憲謹記.

112)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규장각, 한의학연구원 도서관, 산청군 한의학박물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경희대학교 도서관, 경상대학교 도서관, 가천길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한독약품도서관,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

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에서 홍역 전문의서 3권¹¹³⁾을 한 권으로 묶어 한글로 간행되었다¹¹⁴⁾.

『實驗單方』¹¹⁵⁾은 경험방으로서 민간의학경험과 전문적인 의론을 바탕으로 성립한 의학지식이 결합하여 실용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의학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의서이다. 이 책은 문헌의 정리나 재인용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얻어진 사실적인 방법들을 그대로 기록하였다. 본문 중에는 그가 실제로 겪었던 여러 가지 치료 경험 사례와 자세한 치료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劉以泰는 이론을 떠나 보다 실증적인 의학을 추구한 것으로 사우의 글에서 나타난다¹¹⁶⁾. 그의 이러한 학문적인 성향으로 말미암아 진료현장에서 얻어진 생생한 경험기록들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實驗單方』은 오늘날 의학사 연구에 있어서 당시의 생생한 치료 현장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어주고 있다. 부산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實驗單方』을 한글로 번역하여 『국역 실험단방』으로 출판되어 있다¹¹⁷⁾.

『麟西聞見錄』¹¹⁸⁾은 경험방으로 1709년 저술¹¹⁹⁾되었고 杏雨書屋¹²⁰⁾과 세화당¹²¹⁾이 소장하고 있다. 행우서옥 소장본은 서문이 없고 남원 세화당 소장본에 서문이 있으나 號 인서를 ‘麟西’로 표기하고 있

관, 용인대학교 중앙도서관, 일본 오사카 행우서옥, 유호경, 유철호.

113) 유이태 『癩疹篇』. 이현길 『癩疹奇方』. 정약용 『麻科會通』.

114) 장일무, 『한국전통의약번역총서②』. 서울,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1995. pp.61~133.

115) 부산 거주 하형호가 劉以泰 의서를 소장하고 있다고 김호가 알려주었다. 하형호가 소장하고 있었던 『實驗單方』은 필사본 복사본이었고 필자에 제공하여 소장하고 있다. 『實驗單方』 원본을 찾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찾지 못했다.

116) “경험하여 마음으로 깨치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 전수는 외부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었다.” 契驗貴心得 傳受非外資. 참봉 정중원. 『유이태 문집』.

117) 『국역 실험단방』. 한국한의학연구원, 대전시, 2012년.

118) 김호가 『麟西聞見錄』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본 오사카 杏雨書屋 해외영인본이라 복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행우서옥을 방문하여 『麟西聞見錄』 복사를 요청하여 복사본을 받았다.

119) “屠維赤奮若仲秋之月麟西老父書.”

120) 일본 오사카 소재.

121) 전북 남원시 소재.

다¹²²⁾.

무단으로 가져간 2권 醫書 『OOO』는 1975년 중반 문화방송에서 ‘집념’¹²³⁾이 방영 중이었을 때 대학교수라고 칭한 두 분이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송정 유학준 집에서 가족¹²⁴⁾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가지고간 劉以泰가 남긴 醫書들 이다¹²⁵⁾. 劉以泰 후손들이 의서를 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화재로 소실된 醫書』, 處方箋, 針, 醫術器具는 閔順伊¹²⁶⁾의 고증에 따르면 “劉以泰 할아버님께서 남기신 유품들을 중매에 사는 종손 금돌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였다¹²⁷⁾. 유품들은 “족보와 劉以泰 할아버님께서 남기신 유품인 醫書, 處方箋, 침, 의술기구, 옛날 책들을 작은 집에서 받아 사랑채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1940년대 초반 사랑채에 화재가 발생하여 족보만 챙기고 다른 모든 유품들을 가져나오지 못하여 화재로 없어졌다.”고 하였다¹²⁸⁾. 鍼術 및 婦

122) “대개 사람의 한평생을 바라보건대 병이 없는 자가 드물다. 그렇지만 병든 자로 하여금 능히 자기의 병을 調治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준다면 반드시 몸을 훼손하는데 이르지 않아도 될 것이니 가히 조심하지 않으랴. 내가 평소에 경험한 여러 가지 잡병 치료법과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단방을 한 책에 수록하여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하고자 했으니 구료하는 방도가 비록 醫家全書와 같이 상세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날마다 쓰는 데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있을 것이다. 己丑年(1709) 가을(음8월) 인서노부(麟西老夫)가 쓰다.” “病小經驗, 所得聞知(至)單方, 隨錄於一冊, 以備後來, 救療之方, 雖非醫家全書之祥, 亦有補於人生日用之萬一云爾. 屠維赤奮若仲秋之月麟西老父書” 『麟西聞見錄』. 남원 세화당 소장본.

123) 이은성 집필.

124) 유성열(1930~). 劉以泰 9대손. 경남 산청 생초 신연리 송정 509번지. 유성호(1930~). 劉以泰 9대손. 경남 산청 생초 신연리 송정 511. 유위동(1949~). 劉以泰 10대손. 경남 산청 생초 신연리 송정 509번지.

125) 劉以泰 의서 2권을 무단으로 가져간 두 분은 劉以泰 의서를 劉以泰 후손들에게 반드시 돌려 주어야할 사항이다.

126) 閔順伊(1911~2012). 劉以泰 8대孫婦. 夫 劉學先. 子 劉成烈. 경남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509번지.

127) “시집와서 3~4년 쯤 되어서 집안에 보관중인 劉以泰 할아버님께서 남긴 옛날 의술 책(침술, 부인병 및 다른 서적), 족보, 화지(치방전), 針, 醫術器具들은 중매(오부 북동) 금돌이에게 주었다. 너무골(신연)서 가져온 가재는 병자년(1936년) 수파에 모두 떠내려갔다. 다만 수파(홍수)가 왔을 때 집에 보관하고 있던 책, 밥그릇만 가지고 월곡으로 잠시 피했다.” 2003. 4. 20 閔順伊와의 대화에서.

128) 2000년 3월 19일. 장소 : 경남 산청군 오부면 북동리

人科 관련 저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2) 柳義泰 著書 및 遺品

柳義泰가 著書를 남겼다는 기록은 보이지 아니했고 또한 著書로 추정되는 책도 보이지 아니했다. 반면에 산청한의학박물관에 있는 柳義泰 가묘 『묘갈문』에는 柳義泰의 유품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²⁹⁾. 산청군청 문화관광과 담당자, 한의학박물관 학예사 그리고 柳義泰 가묘 『묘갈문』 글쓴이 이천규¹³⁰⁾에게 柳義泰가 남긴 遺品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柳義泰가 남긴 著書와 遺品은 없다.”고 하면서 “晉州柳氏 향토사학자 류근모에게 문의하라.”고 하였다. 류근모를 만나 柳義泰가 남긴 저서나 유품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저서는 없다.”고 하였고 유품에 대해서는 가묘의 『묘갈문』에 기록된 내용을 반복 이야기하였다¹³¹⁾. 산청군 신안면 상정 晉州柳氏 家門에는 著書 및 遺品 등이 전해져 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문헌 검토

1) 설화

명의설화 속의 名醫 실존여부를 확인할 때는 出生地, 活動地와 活動地 隣近地域에 해당 名醫說話가 문헌에 채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한다. 『대계』에는 많은 醫家들의 의료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 劉以泰(柳義泰) 설화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대계』의 劉以泰 설화와 柳義泰 설화는 주인공은 同一人이다. 그 근거는 첫째 出生地, 活動地와 活動地 隣近地域에서의 설화 채록을 살펴보아야 한다.

<표4>에서 ① 劉以泰 출생지 위천면에는 3개의 설화가 채록되어 있고 그 설화들의 주인공은 ‘유이태’와 ‘유의태’이다. 선행 연구자, 산청군청 당국자들과 산청 향토사학자들이 주장하는 柳義泰 출생지 신안면에서는 柳義泰 설화가 채록된 기록은 보이지 않

았다. ② 劉以泰의 의술활동지 생초면에서는 劉以泰¹³²⁾와 유의태¹³³⁾로 설화가 채록되어 있으나 柳義泰의 의술활동지 금서면에서 柳義泰 설화가 채록된 기록은 없고 ‘劉以泰 장군수’ 설화는 채록되어 있다. ③ 劉以泰와 柳義泰의 의술활동지 인근 지역인 산청 금서면과 오부면 그리고 함양군 유림면에서는 劉以泰 설화가 채록¹³⁴⁾되어 있으나 柳義泰 설화는 채록된 기록이 보이지 않았다.

둘째, 채록된 설화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표5>에서 ① 거창군 위천면 설화 32¹³⁵⁾에 ‘신연당 유의태’ ‘서마리’, ‘유의태 침바우’ 등이 채록되어 있다. ‘신연당’은 劉以泰 號, ‘서마리’는 劉以泰가 태어난 ‘사마리(司馬里)’, ‘유의태 침바우’는 ‘劉以泰 침대롱 바위¹³⁶⁾’이다. 또한 위천 설화 32 ‘신연당 유의태’ 구연자는 劉允鳳¹³⁷⁾이다. 劉允鳳의 15대조는 劉永孫¹³⁸⁾으로 劉以泰의 7대조 劉貴孫¹³⁹⁾의 첫째 동생이다. 劉允鳳이 큰집 先代 15대조 劉以泰를 ‘유의태’로 구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천 설화 32 채록자는 박종섭 이다. 그의 책¹⁴⁰⁾에는 同一 설

132) 산신령과 의서, 태아와 텃줄, 소년과 지네, 新淵堂과 침술 내기, 분만, 신연당과 어린이, 농군과 뱀독, X-레이 풀 이야기, 낙태기, 처녀와 여우, 新淵堂과 사침(蛇針), 출산 촉진제와 新淵堂 아들, 효성과 劉以泰湯, 4대 독자와 3대 과부.....

133) 조희웅, 노영근, 박인희. 『영남 구전자료집2』. 경상남도 산청군.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2003. pp.208~211. 채록일 : 1994년 4월. 채록지(원수) : 신안면과 신등면(43편), 단성면(20편), 오부면(20편), 생초면(30편), 산청읍(28편).

134) 오부면 : 심리치료 약속터(구연자 이호원), 금서면 : 장군수(구연자 강무성), 유림면 : 유의태와 상사병 처녀(구연자 정몽룡)

곽의숙. 『한국 의료설화연구』.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8. pp.181~185.

135) 『한국구비문학대계 8-6』. 거창군 위천면 설화 32.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원. 1981. pp.486~489.

136) 위천면 사마리 위천교회 입구 오른쪽에 있다.

137) 유윤봉(1909~1987). 劉氏大同譜編纂委員會中央本部理事兼慶南道支部長 居昌劉氏門長. 劉永孫(字 有遠, 통정대부) 15대손. 『거창유씨족보 3권』. 1988. p.402.

138) 劉永孫. 字 有遠. 통정대부. 『거창유씨족보 1권』. 1988. p.11.

139) 劉貴孫. 字 有慶. 忠武衛禦海將軍 通政大夫 용양위부호군 증자헌대부병조판서. 登東儒學案 登安義誌. 配전주이씨 妻父 長平副正 이혼(李訥). 祖父 양령대군 이강 曾祖 공정대왕 이방원. 『거창유씨족보 1권』. 1988. p.5.

복동 유금돌 자택.

129) “선생의 유품은 정태의 아랫마을(하정) 앞 강가에 묻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출전 : 산청한의학박물관 단지 柳義泰 가묘 묘비. <별지3. 神醫柳義泰先生墓碑文>.

130) 山淸教育廳 獎學士 星州人 李千圭.

131) 류근모와의 대화. 2012년 12월 30일.

<표4. 출생지(거창 위천 vs 산청 신안)와 활동지(산청 생초 vs 금서) vs 인근지역 채록된 설화 비교표>

구분	출 생 지		활 동 지		활동지 인근지역	
名醫	劉以泰	柳義泰	劉以泰	柳義泰	劉以泰	柳義泰
지역	거창 위천면	산청 신안	산청 생초면	산청금서	산청 오부면/함양 유평면	
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천 설화 32 (신연당 유이태) • 유이태와 여우치녀 • 천년두 만년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呪寶언어 병자 치료한 유이태 • 신연당과 사친 • 신연당과 침술내기 • 신연당과 보서 • 名醫 劉以泰 • 기타 12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이태와 피부병 아이 • 명의 유이태 이야기 • 유이태와 상사병치녀 • 유이태와 피부병 아이 • 심리치료 약수터 • 장군수 	-
출전, 기술자 및 채록자	『대계』, 『거창군지』, 『위천면지』, 『거창의 역사와 전설』	-	『산청군지』, 『영남 구전자료집2』, 유우윤, 윤연수, 배위병, 이종기	-	곽의숙 논문, 이호원, 강부성	

<표5. 『한국구비문학대계』 劉以泰 설화와 柳義泰 설화 同一人物 분석 비교표>

대계 설화	『대계』 채록된 柳義泰 설화 내용	고증된 劉以(爾)泰 설화 내용
거창군 위천 설화 32	신연당 柳義泰	新淵堂은 劉以泰 號(활동지 산청 생초 신연 지명)
	서마디	서마디 : 신연당 劉以泰 출생지 사마리(司馬里)
	柳義泰 침바우	침바우 : 유이태 설화 침대롱 바위(위천교회 입구)
	다름재	다름재 : 거창 위천면과 마리면 경계에 있는 재
의령군 칠곡 설화 59	마진(麻疹)법의 저자 柳義泰.	황산 : 劉以泰 선영(위천면 황산리 15번지) 『麻疹篇』 저자 : 猿學山人 유이태(劉爾泰)
의령군 봉수 설화 26	대국천자 천문창, 조선에 온 柳義泰.	『산청군지』, 『향교지』와 『조선환여승람』에 중국황제 치료한 후 관직을 고사한 내용 기록 등재.
의령군 봉수 설화 25	柳義泰의 千年遺骨萬年水와 세 마리와 벌레.	하동군 약양 설화 35 劉以泰의 千年遺骨三蛇水
성주군 대가 설화 56	서울에 김판서의 딸을 유이태가 고쳐 주었다.	劉以泰가 숙종 36년(1710)과 39년(1713) 의약동참으로 숙종을 치료한 이야기가 세월이 흐르면서 변형된 것이다.
거창군 남상 설화 16	산청에 사는 柳義泰가 이름이 서울까지 나서 왕비 병을 고치기 위하여 서울로 불러올림.	
의령군 칠곡 설화 59	명의 柳義泰가 공주의 이상한 병 치료	

화141)가 劉以泰로 기록되어 있으며 위천면지 설화에도 劉以泰로 기록되어 있다¹⁴²⁾. ② 의령군 칠곡면 설화 59¹⁴³⁾에 『마진법』의 저자가 유이태로 채록되어 있다. 『마진법』은 『麻疹篇』이고 著者는 猿學山人

劉爾泰¹⁴⁴⁾이다. ③ 의령군 봉수면 설화 26¹⁴⁵⁾에 ‘대국천자 천문창’, ‘조선에 온 유이태’로 채록되어 있으나 『거창유씨족보』, 『산청군지』, 『산청향교지』와 『조선환여승람』에는 劉以泰가 중국천자를 치료한 후 관직을 고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④ 의령군 봉수 설화 25¹⁴⁶⁾에 ‘유이태의 千年遺骨萬年水’, ‘세 마리의 벌레’로 채록되어 있으나 하동군 약양 설화 35¹⁴⁷⁾는 ‘劉以泰의 千年遺骨三蛇水’로 동일한

140) 박종섭. 『거창 명승지의 역사와 전설』. 대구. 도서출판 문장사. 1997년. pp.64~69.

141) “사마리에 조선 숙종 때 유이태(劉以泰)라는 유명한 의원이 있었는데, 그의 신비한 의술과 관련된 전설 한 편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의 신술(神術)을 감탄해 마지않는다. 유이태는 이 서마리에서 출생하여 그의 의술이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명의로 유명하다.” 박종섭. 『거창 명승지의 역사와 전설』. 대구. 도서출판 문장사. 1997. p.64.

142) • 숙종조(肅宗朝)의 名醫 유이태(劉以泰), • 명의 유이태(名醫 劉以泰). 『위천면지』. 경남. pp.80~83.668~671.

143) 『한국구비문학대계 8-10』. 의령군 칠곡면 설화 59.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원. 1984. pp.672~681.

144) 劉爾泰는 그의 저서 『麻疹篇』, 『實驗單方』, 『麟西聞見錄』에 사용했던 劉以泰의 同音異字(意) 이름이다.

145) 『한국구비문학대계 8-11』. 의령군 봉수면 설화 26.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원. 1984. pp.670~678.

146) 『한국구비문학대계 8-11』. 의령군 봉수면 설화 25.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원. 1984. pp.666~670.

147) 『한국구비문학대계 8-14』. 하동군 약양면 설화 35. 경

<표6. 『한국구비문학대계』, 『산청군지』, 『위천면지』, 『역사와 전설』 설화 내용 비교표>

출전	『한국구비문학대계』			『산청군지』	『위천면지』	『역사와 전설』
지역	위천 설화 32	봉수면 설화 25	악양면 설화 35	산청 생초면	거창 위천면	위천
제목	신연당 유의태	유의태 의원도 못 고치는 병이 있었다.	유이태	名醫 劉以泰	名醫 劉以泰	名醫 劉以泰
환자	어머니 병	어머니 병	어머니 병	어머니 병	어머니 병	어머니 병
약	천년두 만년수	천년두골 만년수	천년유골 삼인수	천년두 만년수	천년두 만년수	천년두 만년수

千年遺骨이 채록되어 있다. 또한 『산청군지』와 『위천면지』에 ‘劉以泰의 千年遺骨萬年水’로 채록되어 있다. ⑤ 경북 성주군 대가 설화 56¹⁴⁸⁾에 ‘서울에 김관서의 딸을 유의태가 고쳐주었다.’ 경남 거창군 남상 설화 16¹⁴⁹⁾에 ‘산청에 사는 유의태가 이름이 서울까지 나서 왕비 병을 고치기 위하여 서울로 불러올림’과 의령군 칠곡 설화 59¹⁵⁰⁾ ‘명의 유의태와 공주의 이상한 병 치료’는 劉以泰가 숙종 39년 의약 동참으로 숙종을 치료한 설화가 세월이 흐르면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천면, 칠곡면, 봉수면, 대가면, 남상면 설화 주인공 ‘유의태’는 산청 생초의 ‘劉以泰’의 파생된 이름이다. 『대계』의 유이태는 구연자(口演者)가 ‘劉以泰’를 ‘유의태’로 구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환자와 처방 약이 동일한 설화의 名醫가 지역에 따라 名醫 이름이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표6> 설화 속의 患者는 어머니이다. 환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간 사람은 아들이며, 아들이 어머니께 먹인 약은 ‘千年頭 萬年水’ 또는 ‘三蛇水’ 이었다. 설화 속의 名醫 이름은 거창 위천에서는 ‘名醫 劉以泰’, ‘신연당 유의태’, 산청군지¹⁵¹⁾에는 ‘名醫 劉以

泰’와 하동 악양에서는 ‘유이태’로 채록되어 있다. 그러나 의령 봉수에서는 ‘유의태’로 채록되어 있다. 따라서 『대계』의 위천면 설화 ‘신연당 유의태’와 봉수면 설화는 유의태 설화가 아니고 劉以泰 설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名醫 이름이 비슷한 이름으로 채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표7>에서 경북 영주의 名醫 ‘이석간’¹⁵²⁾은 충북 단양¹⁵³⁾, 경북 성주군¹⁵⁴⁾과 경북 봉화읍에서 ‘이석한’¹⁵⁵⁾으로, 전북 정읍의 名醫 ‘황익삼’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황일삼’¹⁵⁶⁾으로 채록되어 『대계』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산청의 名醫 유이태(劉以泰.劉爾泰)도 비슷한 이름(유의태, 유희태¹⁵⁷⁾)으로 각 지역마다 다르게 『대계』에 채록되어 있다. 名醫說話의 名醫는 실존인물의 名醫를 기반으로 실존 인물을 능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名醫 이름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비슷한 이름으로 입에서 입을 통하여 전해졌다. 채록된 유의태와 유희태는 劉以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의 효심에 감복하여 당신을 도와 준 것이요.”했다. ‘민속과 종교 제2장 전설』 『산청군지 제4편』. 경남. 2006. pp.686~691.

152) 이석간(李碩幹). 생몰미상. 조선 중기 醫員. 그의 경험방(經驗方)을 후인들이 수집하여 四醫經驗方을 편집하였다. 四醫는 이석간·蔡得己·朴濂·許任을 말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153) 『한국구비문학대계 3-3』.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설화.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원. 1983. pp.806~809.

154) 『한국구비문학대계 7-4』. 경북 성주군 대가면 설화.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원. 19830. pp.243~247.

155) 『한국구비문학대계 7-10』. 경북 봉화읍 설화. 서울. 고려원. 1984. pp.100~102.

156) 『한국구비문학대계 1-4』.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설화.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원. 1981. pp.390~398.

157) 『한국구비문학대계 8-10』.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설화.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원. 1981. pp. 200~204.

기도. 한국정신문화원. 1986. 539~540.
148) 『한국구비문학대계 7-4』. 경북 성주군 대가면 설화 56.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원. 1983. pp.203~204.
149) 『한국구비문학대계 8-5』. 경남 거창군 남상면 설화 16.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원. 1981. pp.833~843.
150) 『한국구비문학대계 8-10』. 의령군 칠곡면 설화 59.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원. 1984. pp.200~202.
151) “천연두에 만년수라는 약인데, 천년을 묵은 죽은 사람의 해골에 만년이 되도록 고여 있는 물이 바로 그 약이요.” (중략) 유의태의 말을 듣고 난 이 사람은 유의태에게 전날에 생긴 이야기를 자세히 말했더니 유의태는 무릎을 치며, “바로 그 밥그릇이 해골이며, 그 물이 해골 속에 고인 물이요.”하면서 “당신은 하늘이 낸 효자이기에 하늘이 당

<표7. 名醫 이름 변화된 분석표>

名醫	출신 지역	설화 채록 지역	채록된 이름
이석간	경북 영주	충북 단양 어상천 설화, 경북 성주, 대가. 경북 봉화읍 설화.	이석한
황익삼	전북 정읍	경기도 남양주 미금 설화.	황일삼
劉以泰	경남 산청	산청 생초, 산청 금서, 산청 오부, 거창 위천, 함양 유립, 월성 현곡 설화 76, 현곡 설화 186, 월성 외동 설화 26, 하동 악양 설화 35.	유이태
		산청 생초, 창원 북면, 논산 가곡, 성주 대가 설화 56, 거제 신현 설화 71, 거창 남상 설화 16, 거창 위천 설화 32, 의령 칠곡 설화 59, 의령 봉수 설화 25/ 설화26.	유의태
		“부친 병환을 고친 지극한 효성” 경남 창령 고암 계상 1984년 7월 漢字로 劉爾泰, 한글로 유의태로 표기되어 있다. 출전 : 『경남지방의 민담』	유의태(劉爾泰)
		『대계』진양 금곡 설화1, 의령읍 설화 63/ 설화 64/ 설화 65.	유희태

<표8. 유의태와 劉爾泰를 동시에 사용한 설화 - 『경남 지방의 민담』>

녹취된 名醫	설화 채록 지역	설화 제목 및 내용	구 연 자
유의태(劉爾泰)	경남 창령군 고암면 계상리	부친 병환을 고친 지극한 효성(pp.18~19) “옛날에 유의태(劉爾泰)라 카는 의원이 있었거든.”	김정식 남 66세. 1985
유이태(劉爾泰)	경남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유의태 동생의 효심(pp.39~41) “유의태(劉爾泰)라고 커는 조선 명의(名醫)거든.”	김수석, 남 82세. 1984

다섯째, 채록된 설화에서 名醫 이름이 한글과 漢字로 채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표8>에서 경남 창령군과 울주군에서 채록된 설화(158)에는 한글로 유의태, () 안에는 漢字로 劉爾泰, 즉 유의태(劉爾泰)로 표기되어 있다. 한글은 ‘이’와 ‘의’를 혼돈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漢字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유의태는 劉以(爾)泰 이다.

1980~1983년 채록된 『대계』설화, 1984년 채록된 『경남 지방의 민담』설화, 1994년 『영남 구전자료집2』에 수록된 산청군 설화, 거창 『위천면지』에 수록된 설화와 광의숙이 산청 생초와 함양 유립에서 채록한 설화 등 모든 설화들을 분석한 결과 劉以泰가 태어났던 거창 위천과 의술활동을 하였던 생초에서도 ‘이’와 ‘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동일한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이’와 ‘의’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도 발음 때문으로 실존의 劉以泰가 시간이 흐르면서 柳義泰로 변하게 된 것이다. 동일한 치료방법의 설화 주인공 名醫는 지역에 따라 劉以泰와 유의태로 채록되었다. 또한 1982~1986년에 채록된 『경남 지

방의 민담』에는 설화 주인공을 ‘유의태(劉爾泰)’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柳義泰 설화는 劉以泰 설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화속의 名醫 劉以泰와 柳義泰는 同一人物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기록된 문헌

(1) 劉以泰 기록

劉以泰는 『왕실기록』¹⁵⁹⁾, 『居昌劉氏族譜』, 『劉以泰 문집』, 『劉以泰 효행장』, 『사우문집』¹⁶⁰⁾, 『지방지』¹⁶¹⁾, 『지리지』¹⁶²⁾, 『한국구비문학대계』 등 각종 문헌에 기록되어 있고, 『한국의학사』¹⁶³⁾, 『한의학서고』¹⁶⁴⁾, 『한국문화대백과』, 『두산백과』 등에서 劉以

159) 『속중실록』, 『승정원일기』, 『의약동참선생안』.

160) 『목재집』. 梁處濟. 1643~1716. 조선 후기 유학자. 字 季通. 號 默齋. 본관 南原, 童蒙教官. 玄石 朴世采와 明齋 尹拯 사사.

• 『약헌집』. 송정은. 1652~1720. 조선 후기 학자. 본관 여산(礪山). 字 질부(質夫). 號 約軒. 박세채(朴世采) 문인. 대사성, 호조참판, 형조참판. 편저 『國朝名臣言行錄』, 『歷代史論』, 『禮說輯錄』.

161) 『산청군지』, 『산청향교지』.

162) 『조선환여승람 산청편』, 『동유학안』.

163) 金斗鍾. 『한국의학사 상,하권 합본』. 탐구당. 1966년. p.404.

158) 金承燦. 『慶南地方의 民譚』. 서울. 第一文化社. 1986. pp.18~19, 39~41.

泰 또는 劉爾泰로 수록되어 있다. 최근에는 『한국한 의학사』¹⁶⁵⁾,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¹⁶⁶⁾, 『영남을 알면 한국사가 보인다.』¹⁶⁷⁾, 『조선의 名醫들』¹⁶⁸⁾, 『조선사람 허준』¹⁶⁹⁾, 『산청한의학박물관도록』¹⁷⁰⁾,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유의열전(儒醫列傳)』¹⁷¹⁾ 등에 그가 등재되어 있다. 劉以泰는 名醫로서 많은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다. <표9 참조>.

(2) 柳義泰 기록

名醫 柳義泰라는 이름이 문헌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965년 노정우가 『인물한국사』에 기고한 허준 약전¹⁷²⁾이다. 柳義泰는 『인물한국사』에 근거를 둔 『한국역사대사전』¹⁷³⁾,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의림지』¹⁷⁴⁾와 『한국인물탐사기』¹⁷⁵⁾, 『인물한국사』와 『소설』에 근거를 둔 『산청의 명소와 이야기』¹⁷⁶⁾, 『소설』에 근거를 둔 『구암학보』¹⁷⁷⁾, 설화 채록집(『대

계』¹⁷⁸⁾, 『한국구전설화집』¹⁷⁹⁾, 『창원군지』¹⁸⁰⁾와 『영남 구전자료집』¹⁸¹⁾), 드라마, 『소설』¹⁸²⁾, 산청박물관 그리고 산청한의학박물관 柳義泰 가묘 『묘갈문』, 『산청 한의학박물관 도록』¹⁸³⁾, 『허준과 류의태 이야기』¹⁸⁴⁾, 『한의약보고서』¹⁸⁵⁾, 『구현회 논문』¹⁸⁶⁾ 등에 나타난다. <표10 참조>.

① 『醫林紙』에는 허준이 의학을 배운 지역을 발표한 이종형의 『연설문』을 게재하였다. 연설문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許浚이 산청지방에서 성장하고 高名한 老醫 밑에서 의학을 배운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하였다¹⁸⁷⁾.

164) 김신권. 『한의학서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p.774. pp.425~427.
165) 이재수. 『한국한의학사』. 도서출판 우리. 1994. 대구. p.286. pp.137~138.
166)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p.108, 258.
167) 역사학자 48인. 『영남을 알면 한국사가 보인다.』 대구 사학회편. 서울. 푸른역사. 2005. pp.268~274.
168) 김호. 『조선의 名醫들』. 경기도. (주)살림출판사. 2007. pp.50~61.
169)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1. pp.47~48.
170) 산청군수. 『산청한의학박물관도록』. 경남. 산청군. 2008. p.71. p.102~104. pp.157~158.
171)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유의열전(儒醫列傳)』. 경기도. 도서출판 들녘. 2011. p.255.
172) 노정우. 허준. 『인물한국사III』. 서울. 박우사. 1965. pp.358~359.
173) 『한국역사대사전』. 서울. 을유문화사.
174) 이종형. ‘허준선생의 생애와 그 업적.’ 『慶尙道地方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 선생이 성장한 곳은 경상도 산청지방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곳에서 선생은 어릴 적부터 고명한 老醫 밑에서 醫學을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의림지』. 서울. 1965.1. p.2.
175) 강만길. 이은상. 조기준의. 『한국인물탐사기 IV 조선의 인물2』. 오늘. 1996. p.382~385.
176) 손성도/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선비의 고장 산청의 명소와 이야기』. 서울. 현대문예. 2000. pp.379~393.
177) • 한대회. ‘허준의 생애에 대한 고찰.’ 『龜巖學報 장간제1호』. 1991.9. p.90.
• 허상희. ‘의성 허준선생과 동의보감.’ 『龜巖學報. 허준제3호』. 사단법인 의성허준기념사업회. 1993.12. p.66.

178) 『한국구비문학대계』.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8~1987.
179) 『한국구전설화집』. 서울. 민속원. 2000.
180) 『창원군지 제11편』. 민속문화와 방언. 제2장 민요. 설화. 경남. 창원군청. 1994. pp.1705~1706.
181) 조희웅. 노영근. 박인희. 『영남구전 자료집2』.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2003. pp.209~211.
182)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 창작과 비평사. 서울. 1990.
183) 『산청한의학박물관도록』. 산청군수. 2008. pp.159~160. pp.268~274.
184) 산청군수. 『동의보감.산청 허준과 류의태 이야기』. 경남. 도서출판 인디. 2009. p.44,79,94.
185) 『2009년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약 문화연구 보고서』. 경남. 산청군청. pp.71~141.
186) •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名醫 柳義泰의 자취 연구.’ 『영남학회지 제16호』. 2009. p.381.
•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에 나타난 의학적 처치의 사실성과 의미 - 류의태 의료설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학지 제23권 1호』. 2009. p.12.
187) 이종형. ‘許浚先生의 生涯와 그 業績(演說文).’ 『醫林』. 서울. 의림사. 1964. pp.1~2.
“이제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許浚先生의 生涯와 略歷을 간단히 紹介해 볼까합니다. 許浚 先生은 李朝 第一三代王인 明宗元年(즉 西紀 一五四六年) 三月五日에 지금의 京畿道 金浦郡 陽村에서 부친 許는씨와 모친 孫氏 사이에 第二男으로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선생의 本貫인 陽川許氏는 代代로 名門의 집안이어서 선생의 祖父되시는 許芝는 武科에 登科하여 慶尙右水使를 지냈고, 선생의 부친도 역시 武科에 登科하여 龍泉府使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名門의 집안에 태어났으면서도 선생은 아마도 嫡係가 아닌 庶族이었던 때문인지, 嫡庶의 차별이 심했던 當時, 선생은 榮譽로운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한낱 中人들의 業으로 되어 있던 醫學의 길로 발을 드러 놓았습니다. 선생은 어릴 적에 祖父의 赴任地인 慶尙道 地方으로 移住를 하게 되어 선생이 生長한 곳은 山淸地方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곳에서 선생은 어릴 적부터 高名한 老醫 밑에서 醫學을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표9. 문헌에 나타난 유이태(劉以泰)>

연 도	이 름	출 전	비 고
1710년	유이태(劉以泰)	『승정원일기』	왕실기록
1712년	유이태(劉以泰)	『유이태효행장』	유이태 효행/선행에 대한 사우 추천장
1713년	유이태(劉以泰)	『숙종실록』	왕실기록
1713년	유이태(劉以泰)	『승정원일기』	왕실기록
1714년	유이태(劉以泰)	『승정원일기』	왕실기록
1714년	유이태(劉以泰)	『의약동참선생안』	御醫 이름 기록부
1715년	유이태(劉以泰)	『劉以泰 묘갈문』	산청군 생초면 갈전리 명주동
1716년	유이태(劉以泰)	『默齋集』	사우 문집(유이태 사후에 쓴 글이라 추정했다.)
1719년	유이태(劉以泰)	『증영장』	사우 추천장. 이언경
1725년	유이태(劉以泰)	『승정원일기』	왕실기록
1769년	유이태(劉以泰)	『거창유씨 가족보(己丑譜)』	족보
1910~1937	유이태(劉以泰)	『조선환여승람』	지리지
1934년	유이태(劉爾泰)	『麻疹篇』목판본	저서 의서(醫書)
1943년	유이태(劉以泰)	『동유학안』	유학자 학술과 덕행 고찰 문헌
1962년	유이태(劉爾泰)	『朝鮮醫學史及疾病史』	인물백과사전
1966년	유이태(劉爾泰)	『韓國醫學史』	인물백과사전
1980~1982	劉爾泰	『경남 지방의 민담』	구전설화
1982~1986	유이태	『한국구비문학대계』	구전설화
1982년	유이태(劉爾泰)	『행우서옥 장서목록』	장서목록
1987년	유이태(劉爾泰)	『韓醫學書攷』	인물백과사전
1991년	유이태(劉以泰)	『산청향고지』	지방지 인물편
1995년	유이태(劉爾泰)	『한국전통의약번역총서』	번역본 저서. 서울대천연물과학연구소
1996년	유이태(劉爾泰)	『韓國韓醫學史』	인물백과사전
1997년	유이태(劉以泰)	『거창군사』	거창군 역사
1997년	유이태(劉以泰)	『거창 명승지의 역사와 전설』	역사와 전설, 설화
2000년	유이태(劉以泰.劉爾泰)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김호 박사학위 논문
2000년	유이태(劉以泰)	선비의 고장 산청의 명소와 이야기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손성모)
2000년	유이태(劉爾泰)	『조선후기의 醫書編纂』	손홍렬 학술 논문 (충북사학 제11.12합편)
2002년	유이태(劉以泰)	『전통 한의학의 뿌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3년	유이태(劉以泰)	『한국인물사 열전2』	63인의 역사학자가 쓴 한국인물사 열전2
2003년	유이태(劉以泰)	『진주 옛이야기』	설화
2004년	유이태(劉爾泰)	『고의서 산책』	의서 평전. 고의서산책 187.
2005년	유이태(劉以泰)	『영남을 알면 한국사가 보인다.』	인물열전
2006년	유이태(劉以泰)	『산청군지』	지방지 인물편
2006년	유이태(劉爾泰)	『韓醫學通史』	한의학 교과서
2004년	유이태(劉爾泰)	『고의서 산책』	의서 평전. 고의서산책 187.
2006년	유이태(劉爾泰)	『고의서 산책』	의서 평전. 고의서산책 287
2007년	유이태(劉以泰)	『조선의 명의』	인물열전.
2007년	유이태(劉以泰)	『조선 후기의 내의원 연구』	박사학위 논문

2008년	유이태(劉以泰)	『조선사람 허준 평전』	인물열전.
2008년	유이태(劉以泰.劉爾泰)	『산청 명의들』	지방지. 박물관도록.
2009년	유이태(劉以泰.劉爾泰)	『한의약 연구보고서』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약 연구보고서 2009
2009년	유이태(劉爾泰)	『한국전염병사』	대한감염학회
2010년	유이태(劉爾泰)	『국역 實驗單方』	한글 번역본. 저서 의서(醫書)
2011년	유이태(劉爾泰)	『고의서 산책』	의서 평전 고의서산책 505
2011년	유이태(劉以泰)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인물열전
2011년	유이태(劉爾泰)	『낮은 한의학』 ¹⁸⁸⁾	동의보감의 뿌리를 찾아서
2011년	유이태(劉以泰.劉爾泰)	『한국의사학회지』	오준호 논문
2012년	유이태(劉以泰.劉爾泰)	『麻疹篇』 저술시기』	김중권 논문. 『麻疹篇』 저술시기
2011년	유이태(劉爾泰)	『마진학의 발전』	한의학통사
2012년	유이태(劉以泰.劉爾泰)	『麻疹篇』 저자와 저술시기에 대한 고찰』	학술 논문
2013년	유이태(劉爾泰)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문헌 창의적 해석을 통한 미래지식 보급 구축(과제번호 : K12110)	전통지리지 및 읍지를 통해 본 본초약재정보와 지역문화에의 활용 -경상남도 산청을 중심으로-

그러나 그는 허준의 스승이 누구라고 밝히지 아니했고 고증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했다. 고증된 문헌자료가 빈약한 당시에 전해들은 이야기 “허준이 산청에 성장한 것”으로 한의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② 노정우는 1965년 박우사의 요청으로 『인물한국사』에 허준 약전을 쓰면서 柳義泰를 허준의 스승으로 학계에 처음 발표하였다.

“그의 선대(先代)는 거의 대대로 중선(中鮮)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거주하고 활동하였으나 허준의 할아버지가 경상도우수사(慶尙道右水使)를 오래 역임했고, 그 할머니가 진주(晉州) 출신의 유(柳)씨인 점으로 미루어 그의 어렸을 때의 생장은 역시 경상도 산청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당시로부터 근세까지도 허·유 양씨가 그 지방의 쌍벽인 대성(大姓)이었던 사실과 그 당시 산청 지방에 유이태(柳義泰)라는 신의(神醫)가 있었는데 그는 학식과 의술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인품이 호탕하고 기인(奇人)으로서 많은 일화와 전설을 남기고 있는데 이 유이태가 바로 허준의 의학적인 재질과 지식을 키워 준 스승이었다는

것이 여러 각도로 미루어 보아 부합되는 점이 있어 수긍이 간다. 이 유이태는 의술이 고명하고 박학다재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외척전횡(外戚專橫)의 정치와 양반계급의 횡포와 노략질 등 부패한 세태에 대한 매도(罵倒)와 의분으로 날을 보냈었다. 그는 풍자와 정론(正論)으로 사회를 통박하고, 늘 헤어진 옷과 세립(細粒)을 쓰고 산천을 유랑하며 자유분방한 멋으로 생을 즐겼으므로 당시 경상도 일대의 뜻있는 인사들 사이에 흡모의 대상이 되었었다¹⁸⁹⁾”.

노정우의 주장은 문헌적 뒷받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적 진위를 확정할 수 없으나 여러 문헌¹⁹⁰⁾들에 인용되어 오류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노정우가 언급한 柳義泰 행적 - “학식과 의술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인품이 호탕하고 기인(奇人)으로서 많은 일화와 전설을 남기고” 및 “의술이 고명하고 박학다재” - 은 劉以泰의 행적 “儒醫로서 학식과 의술이 높았고 경상좌우도에 많은 사우가 있으며 여러 가지 일화와 전설을 남겼

189) 노정우. 허준. 『한국인물사』. 서울. 박우사. 1965. pp.358~359.

190) 『한국역사대사전』,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한국인물탐사기』, 『소설 동의보감』.

188) 이상근. 『낮은 한의학』. 서울. (주)아이언박스. 2011. p.25~26.

<표10. 문헌과 드라마에 나타난 柳義泰>

연 도	이 름	출 전	비 고
1965년	유이태(柳義泰)	『인물한국사』	인물한국사. 노정우 허준 약전
1975년	유이태(柳義泰)	드라마 '집념'	이은성 집필
1980년	유이태	『한국구비문학대계』	구전설화집
1983년	유이태	계명대학교. 민속어문논총	강신옥. 명의담에 나타난 인간 및 세계인식
1990년	유이태(柳義泰)	창작과비평사. 『소설 동의보감』	이은성. 소설
1991년	유이태(柳義泰)	『龜巖學報 창간제1호』	한대회. 허준의 생애에 대한 고찰.
1992년	유이태(柳義泰)	『브리태니커 세계백과사전』	인물한국사. 허준
1993년	유이태(柳義泰)	『龜巖學報. 허준제3호』	허상희. 의성 허준선생과 동의보감.
1994년	유이태(柳義泰)	『창원군지』, p.1705~1706	유이태 이야기. 창원군 복면 화천리 시화. 전기호
1996년	유이태(柳義泰)	오늘	재미있게 간추린 한국 인물 탐사기
1997년	유이태	『구비명의 전설연구』	계명대학교. 석사 논문
1999년	유이태(柳義泰)	드라마 '허준'	이은성 원작, 최완규 집필
2000년	유이태(柳義泰)	『산청의 명소와 이야기』	현대문에 손성모
2000년	만년수(萬年水)로 고친 병	『한국구전설화집1』 (서울. 민속원, 2000. 8. 20)	박종익(구연자:김용모, 남. 88,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경로당. 녹취일 : 1998.6.4)
2003년	머느리 치료 못한 유이태	『영남 구전자료집 2』 (서울. 박이정. 2003. 5. 1)	구연자 : 조병우, 윤연수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녹취일 : 1994. 4. 08
2005년	柳義泰	『晉州柳氏世譜 권1』	족보
2005년	유이태	『한국구전설화집14』 (민속원, 2005)	박종익(구연자:안치연, 남. 82,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왕암리. 녹취일 : 2000년 4월)
2007년	유이태	『구비설화에 나타난 치병관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 논문
2008년	유이태	한국 의료설화	동의대학교. 박사 논문
2009년	유이태(柳義泰)	허준과 류의태 이야기	산청군청
2009년	유이태(柳義泰)	영남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名醫 柳義泰 자취 연구
2009년	유이태(柳義泰)	『한국의사학회지』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에 나타난 의학적 처지의 사실성과 의미- 유이태 의료설화 사례를 중심으로
2009년	유이태(柳義泰)	『한의학보고서』	산청의 韓醫學 전통과 韓醫藥 문화연구

다.”¹⁹¹⁾와 부합된다. ③ 『한국역사대사전』은 盧正祐

191) • “(전락) 재제가 절륜하고 행동을 하였다. 의술이 방통하여 크게 알려져 사람들의 추천으로 청나라를 방문하여 황제의 병을 치료 하였다. 황제가 높은 관직을 주었으나 고사하고 돌아왔다. 효행이 높고 유명하여 향리 사우들의 포상장이 있고 벼슬은 통덕랑이다.” “(전락)才藝絕倫篤行實踐傍通醫學大鳴于世薦入清朝治療帝病因授重官固辭不受而還以孝行純至著名鄉道褒狀官通德郎郎”. 이병연(李秉延). 『조선환어승람 산청군 명망』. 서울. 보문사. 1936.

• “유선생은 우리 조선반도의 명의이다. 세상을 떠난지 몇 백년이나 되었는데도 천민이나 아이들까지 아직도 그의 명성을 말하고 있으니 당시 선생의 덕망과 의술을 상상할 수 있다.” “劉先生即我朝鮮半島之名醫 也沒後幾百年與擡兒童尚稱其名當時先生之德廣術高下想之.” 『마진편 발간문서문』, 박주현. 1934.

• “(전락) 재질이 비범하였다. 의학에 매우 밝아 마음은 항상 소탈하였으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 천거되어 중

의 許浚(人物韓國史 III)을 참고문헌으로 밝혔다.¹⁹²⁾

④ 『브리태니커 세계백과사전』에 사실과 다른 내용¹⁹³⁾이 수록되어 한국브리태니커에 e-mail과 편지

국으로 가서 천자의 병을 치료하고는 특별히 금자광록대부이부상서의 벼슬을 제수 받았으나 고사하여 받지 않고 조선으로 돌아왔다. 효행이 순수하고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이 장계를 올리기도 하였다. (하략).” “(전락)才質超凡醫學極明心常爲賤而名自鳴世薦入皇朝以治天子之病而特授金紫光祿大夫吏部尙書固辭不受歸本國且以孝行純至有鄉道狀(하략).” 『거창유씨족보』. 1988.

192) “산청(山淸)에서 성장, 당시 그 지방의 명의이던 유이태(柳義泰)에게 배우고, 1574년(선조 7) 의과에 합격. 참고 문헌 : 盧正祐 許浚 人物韓國史 III.” 허준. 『한국역사대사전』. 서울. 을유문화사.

193) “허준은 1546년(명종1) 지금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에서 아버지 허론(許論)과 어머니 孫氏 사이에서 둘째

로 확인한 결과 1993년경 집필한 것으로 내용이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은 온라인에서 수정된 내용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e-mail로 답신을 보내 주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책자 형태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는 수록이 된 내용이었으나, 추후 검토하면서 논란의 소지 및 참고자료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이미 삭제된 내용입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더 이상 책자본으로는 발간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에만 수정이 된 내용이 올라가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 url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25h0221b194’.

⑤ 『한국인물탐사기』는 고증되지 않은 『인물한국사』의 내용을 옮겨 놓은 글이다¹⁹⁵⁾. ⑥ 『구암학보』에 게재된 허준 스승 柳義泰의 출전은 『소설』이라고

아들로 태어났다. (중략) 허준은 어릴 때 경상도 산청으로 이사하여 이곳에서 성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허준은 이곳에서 어려서부터 고명한 의사 유의태(柳宜泰)의 문하에서 의사 수업을 시작했다.”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브리태니커. 1994. 47p.

194) 2013년 2월 14일. 브리태니커 담당자 : webmaster@britannica.co.kr.

195) “그의 선대(先代)는 거의 대대로 중선(中鮮)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거주하고 활동하였으나 허준의 할아버지가 경상도우수사(慶尙道右水使)를 오래 역임했고, 그 할머니가 진주(晉州) 출신의 유(柳)씨인 점으로 미루어 그의 어렸을 때의 생장은 역시 경상도 산청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당시로부터 근세까지도 허·유 양씨가 그 지방의 쌍벽인 대성(大姓)이었던 사실과 그 당시 산청지방에 유의태(柳義泰)라는 신의(神醫)가 있었는데 그는 학식과 의술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인품이 호탕하고 기인(奇人)으로서 많은 일화와 전설을 남기고 있는데 이 유의태가 바로 허준의 의학적인 재질과 지식을 키워 준 스승이었다는 것이 여러 각도로 미루어 보아 부합되는 점이 있어 수긍이 간다. 이 유의태는 의술이 고명하고 박학다재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외척전횡(外戚專橫)의 정치와 양반계급의 횡포와 노략질 등 부패한 세태에 대한 매도(罵倒)와 의분으로 날을 보냈었다. 그는 풍자와 정론(正論)으로 사회를 통박하고, 늘 헤어진 옷과 세립(細粒)을 쓰고 산철을 유랑하며 자유분방한 멋으로 생을 즐겼으므로 당시 경상도 일대의 뜻있는 인사들 사이에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강만길.이은성.조기준의 저음. 『재미있게 간추린 한국인물탐사기4 조선의 인물2』. 서울. 1996. p385p.

제시하였다¹⁹⁶⁾. ⑦ 이은성은 노정우가 쓴 『인물한국사』의 ‘허준’을 읽고 허준의 스승으로 柳義泰를 1975년 드라마 ‘집념’과 1990년 『소설』에 사용하였다. 산청군청과 향토사학자들은 『소설』, 드라마(‘집념’, ‘동의보감’, ‘허준’)를 柳義泰의 실존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⑧ 2000년 최완규는 ‘드라마 허준’이 종영된 후 柳義泰가 劉以泰라는 사실을 밝혔다¹⁹⁷⁾. ⑨ 『한국구비문학대계』¹⁹⁸⁾에 수록된 名醫 설화의 주인공은 유이태, 유의태, 유희태 등 3가지로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게 채록되어 수록되어 있다.

3) 연구기록

(1) 학술 논문 속의 劉以泰

劉以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김호에 의하여 시작되었다¹⁹⁹⁾. 손홍렬은 자료가 빈약했던 상태에서

196) “선생은 간신히 중언계급에 한하여 문호를 열어준 醫科에 뜻을 품고 부친의 임지인 평안도 용천 땅을 떠나 경상도 산청으로 이사하게 되어 그곳에서 神醫로 칭송받던 柳義泰라는 의원을 만나 의학공부에 열중했다.”

• 한대회. ‘허준의 생애에 대한 고찰.’ 『龜巖學報 창간제1호』. 사단법인 의성허준기념사업회. 1991. p.90.

“1566년(명종 21년 21세). (중략) 哲人이며 仁醫인 柳義泰 門下에서 醫學을 배우기 始作(이은성. 소설 동의보감 상, p.123). 스승 柳義泰 문하에서 同接들의 謀陷으로 出門當함. 7년간 受學으로 醫術이 成就됨.”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 상, p.327,328).

• 허상희. ‘의성 허준선생과 동의보감.’ 『龜巖學報 허준제3호』. 사단법인 의성허준기념사업회. 1993.12. p.66.

197) “이 같은 인물구성을 마치고 실제 집필에 들어간 후 허준에 대한 역사적 사료를 찾으면서 커다란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허준에 대한 역사적 사료가 거의 없었다. 이은성 선생의 『소설 동의보감』은 몇 가지 사실만 제외하면 거의가 픽션으로 꾸며진 이야기였고 일부 스토리는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마저 뒤집어엮은 경우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허준이 내의원내에 들어간 것은 소설에서 표현된 것처럼 과거가 아니라 미암 유희준의 천거에 의해서 이고 허준의 스승으로 묘사된 유의태는 허준 사후 백년후의 인물인 유이태라는 점 등). 얼마간 고민은 했지만 결론은 원작대로 가기로 했다.”

최완규(드라마 허준 집필자). ‘혁명의 길.’ 『문학포럼 2000년 가을호』. 서울. 2000. p.192.

198)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8년~1988년. 『전국 구비문학자료 조사보고서. 82책(자료집), 3책(부록)』. 1979년부터 1985년에 걸쳐 조사 작업이 이루어졌다.

199) 김호는 『거창유씨족보』, 『문집』, 『행장』, 『왕실기록』의 사료를 통해 劉以泰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점에서 의미가 깊다.

劉以泰가 숙종 39년(癸巳年) 의약동참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²⁰⁰. 오준호는 왕실기록문헌과 劉以泰의 저서 『실험단방』을 통하여 劉以泰의 의학수준, 在野 醫家들에 대한 정보, 국내 의학지식 뿐만 아니라 해외 의학지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진 것, 외국인 醫人들과 의학교류 정황과 1710년과 1713년 숙종의 患候가 발생하였을 때 議藥同參과 사후에 그의 의학적 명성과 치법을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깊다²⁰¹. 김중권은 6개 참고문헌²⁰²을 분석하여 『癩疹篇』의 저술시기를 현종 12년(1846) 그리고 저자 劉爾泰와 肅宗 御醫를 지낸 劉以泰가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하였으나²⁰³, 유철호가 47개의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麟西聞見錄』이 1709년 저술되었다는 서문²⁰⁴, 그의 호가 猿鶴山人²⁰⁵, 후손들이 두 개의 이름을 사용 한 예 그리고 『산경군지』에 수록된 劉以泰 설화를 근거로 劉以泰와 劉爾泰가 同一人物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이름 논쟁은 일단락이 되었다.

(2) 학술 논문 속에 나오는 柳義泰

『대계』에 채록된 설화들을 기반으로 柳義泰가 나오는 발표된 논문들의 저자는 강신옥²⁰⁶을 시작으로

200) “劉以泰가 숙종39년(1713)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숙종·영조대에 활동한 영남의 名醫라는 사실과 그의 호를 猿鶴山人이라고 밝혔다. 또한 『癩疹篇』 저술년도를 영조 2년(1726)으로 보는 것과 후손들이 의학을 계승하지 않고 영남에 거주하였고 박주현에게 『癩疹篇』을 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손흥렬. ‘朝鮮後期の 醫書編纂(D) - 英·正組代를 중심으로 -’ 『충북사학 제11·12합집』, 충북사학회. 2000. p.320.

201) 오준호, 박상영, 안상우. ‘왕실기록과 의서 속에 나타난 유이태의 행적.’ 『한국한의학연구논문집 제17권 1호』, 2011.

202) 『癩疹篇』, 『實驗單方』, 『麟西聞見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거창유씨족보』.

203) 김중권. 『癩疹篇』의 저술시기 분석.’ 『서지학연구 제51집』, 서지학회. 2012. pp.303-3313.

204) 屠維赤奮若仲秋之月麟西老父書. “己丑년(1709) 가을(음8월) 인서노부(麟西老父)가 쓰다.”

205) 위천의 다른 이름이다. 金猿山の ‘猿’과 鶴洞의 ‘鶴’을 따서 만든 이름이다. 劉以泰가 출생하였고 선대가 대대로 살던 장소.

206) 강신옥. ‘명의담에 나타난 인간 및 세계인식.’ 『민속어문논총』, 계명대학교출판부. 1983.
“설화 속의 의가에 대한 고찰이 없었고 『구비문화대계』의 명의설화를 중심으로 국문학적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개

로 김명수²⁰⁷, 이지연²⁰⁸, 광의숙²⁰⁹, 구현희²¹⁰

개의 인물 중심이 아니고 구전명의설화와 문헌명의설화의 문제 해결 과정을 의미단위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명의담에 나타난 사건보다 설화에 나타나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중심으로 논한 것으로 명의를 ‘유연의 명의’, ‘수련의 명의’, ‘초월적 능력 획득의 명의’로 분류하고 명의를 효를 연관지어 명의담에 나타나는 세계관적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207) 김명수. ‘구비명의전설연구.’ 『경산대학교 석사 논문』, 1997.
“설화 속의 의가에 대한 고찰이 없었고 유이태와 유의태를 혼합하여 발표하였고 구비 전승되고 있는 명의담을 전설로 규정하고 전설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을 존재양상을 통해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그 유형, 부류, 계열로 나누어 그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다. 전승 현황을 지역별, 명의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후 59편의 명의전설을 사실계열과 허구계열로 大分한 후 사실계열은 ‘명의의술담’, ‘명의담담’으로 허구계열은 ‘교훈담’, ‘신비담’, ‘소담’ 등 5가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口碑名醫傳說에 나타나 있는 문학적인면을 교훈적인 것과 신비화된 것 그리고 해학적인 것으로 나누고 이들 요소에 의해 전설이 민담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8) 이지연. ‘구비설화에 나타난 치병관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논문』, 2007.
“설화 속의 의가에 대한 고찰이 없었고 명의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병이 등장하고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포함된 설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을 치병설화로 정의하였다. 『대계』 82권에 실린 설화를 기반으로 치병설화를 연구대상으로 치병설화의 범위를 설정하여 그 유형을 구분 후 각 유형별로 설화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치병설화에 나타난 전승 집단의 병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명의설화로만 연구되었던 것을 치병설화로 그 범주를 확대하여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09) 광의숙. ‘한국 의료설화연구.’ 『동의대학교 박사논문』, 2008.
“강신옥, 김병수, 이지연 등이 발표한 논문들과 달리 『대계』 82권과 그 외 단행본 및 『대계』 편찬 당시 조사한 채록 그리고 직접 채록한 설화 등 160여편의 각편을 체계화하여 구조 분석을 함으로써 의료설화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였다. 조동일의 설화 분류인 ‘알만한데 모르기’, ‘모를만한데 알기’, ‘알만해서 알기’의 [효행의료담] [효행의료담] [명의의료담]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구전 명의의료담과 문헌 명의의료담을 御醫와 民衆醫로 나누어 특징을 살펴보고 의료설화의 사회문화적 함의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방대한 양의 설화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었고 우리나라에 전승되고 있는 의료설화의 형태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210) ·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名醫 柳義泰의 자취 연구.’ 『영남학회지 제16호』, 2009. p.381.
·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에 나타난 의학적 처치의 사실성과 의미 - 류의태 의료설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표11. 구현희 논문 vs 고증된 유적지 분석 비교표>

유적지	구현희 논문	고증된 유적지
왕산 약수터	류의태 화계 왕산약수터	劉以泰 마진편 통치편 약수터로 추정됨. 劉以泰가 장군에 약수를 담아 생초까지 날랐다고 하여 장군수로 부른다. 고증 : 강무성(산청 금서 화계)
오전리 약수터	류의태 오전리 약수터	劉以泰가 심리 치료한 오전리 약수터. 고증 : 이호원(산청 오부 오전리)
다름재	남원군 주천면 고기리	거창 마리면 월계리와 위천면 남산리 중간. 고증 : 위천면사무소
황산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거창 위천 황산리 15번지. 劉以泰 선영
서실	류의태가 직접 지었다는 서실	“劉以泰가 직접 건립한 서실” 출전 : 劉以泰 文集. 장소 :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송정 509번지
납시터	류의태가 말년에 납시를 즐겼다는 납시터. (산청 생초 월곡 압수 필소)	“劉以泰가 말년에 납시를 즐겼다는 납시터” 장소 : 산청군 생초면 월곡리 압수 필소 고증 : 민영채(생초 신연 송정)

등이다. 선행연구자들은 『대계』를 기반으로 名醫 실존 여부에 관계없이 문헌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김명수는 “柳義泰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고증된 문헌에 나타나지 않은 柳義泰의 가계를 발표하는 오류를 보였다²¹¹⁾.

구현희는 『대계』의 21편, 『거창의 역사와 전설』, 『진주 옛이야기』, 직접 찾은 것 등 44편의 柳義泰 의료설화의 유형 분석, 설화를 통해본 柳義泰의 발자취, 의료설화 속에 드러난 柳義泰의 의료적인 면모 등 柳義泰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분석을 한 것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²¹²⁾. 또한 그녀의 다른

논문²¹³⁾에서 柳義泰 설화 속에서 다섯 종류 병증²¹⁴⁾으로 구분하였고 설화의 처방을 조선시대에 많이 통용되었던 의서²¹⁵⁾들에서 관련성을 찾아보아 한의학적 입장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구현희의 두 편 논문은 고증된 기록이 없는 柳義泰의 출생년도(1516년) 및 출생지 오류를 보였고²¹⁶⁾ 『소설』에 나오는 활동지를 고증 없이 발표하였다.

사학회지 제23권 1호. 2009. p.12.

211) “유의태는 명종조에 경남 산청지역에 실존했던 인물로 허준의 스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근 역사 인물 소설의 유행을 불러일으킨 이은성의『소설 동의보감』에는 유의태의 고향과 거주지가 산음으로 되어 있고, 채록된 설화가 산음 근접 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역에서 명성을 떨쳤던 인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유의태 집안이 의업을 종사하게 된 계기는 그의 1대조인 유술이(柳術而). 『소설 동의보감 중권』,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0. p.151)부터이다. (중략) 이대(二代) 유흥삼(柳興參 : 『소설 동의보감 중권』,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0. p.152) 역시 의술을 이었다. 그는 아버지 유술이와 함께 지리산에서 나는 약초를 모아 유가고약(柳家膏藥)을 만들었다. (중략) 유술이가 의업을 일으키고 4대 뒤인 유도지가 내의원(“유봉사(柳道知)”.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 하권』,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0. p.153)이 되었으나 유의태는 ‘의원은 영달하는 길이 아니다.’라면서 아들을 훈도하였다.”

김명수. ‘口碑名醫전설연구.’ 『경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1997. p.31.

212) 구현희.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名醫 柳義泰의 자취 연구.’ 『영남학』, 경북대학교 영남연구원. 2009. 제16호. pp.379~415.

213) 구현희.안상우. ‘의료설화에 나타난 의학적 처치의 사실성과 의미 - 류의태 의료설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10 제23권 1호』. 2010. pp.11~22.

214) 天門瘡, 産後風, 눈 병, 붓는 병, 虫으로 인한 병.

215) 『舟村新方』, 『壽世秘訣』, 『別抄單方』, 『醫本』, 『丹谷經驗方』, 『四醫經驗方』, 『意方合部』, 『袖珍經驗神方』.

216) • “유의태(柳義泰)는 『소설 동의보감』의 허준의 스승으로 나온 인물이다. 유의태는 1516년(중종11년) 산청군 신안면 상정마을에서 출생하였고, 당대 최고의 神醫로 알려져 있으며 금서면 화계지에서 의술 활동을 하였다.”

구현희.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名醫 柳義泰의 자취 연구.’ 『영남학 2009 제16호』. 경북대학교 영남연구원. p.383.

• “산청군 신안면 상정마을에서 출생하여 당대 최고의 신의로 알려졌던 柳義泰(1516년, 중종11년 출생)의 발자취를 통해 따라가 보았다. 그는 소설 동의보감에서는 허준의 스승으로 의학의 진보를 위해 자신의 몸을 제자 허준에게 해부해 보도록 한 살신성인의 의료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구현희.안상우. ‘의료설화에 나타난 의학적 처치의 사실성과 의미 - 류의태 의료설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10 제23권 1호』. 2010. p.12.

또한 구현희는 <표11>에서 『대계』, 『거창의 역사와 전설』, 『진주 옛이야기』 등에서 채록되어 있는 ‘劉以泰 설화’를 ‘柳義泰 설화’ 그리고 ‘劉以泰 유적지’를 ‘柳義泰 유적지’로 변경하여 발표한 오류를 범하였다.

4. 柳義泰 실존 주장 및 근거

1) 산청군청 당국자, 산청 향토사학자, 진주류씨 족보 전문가 및 구현희 주장

柳義泰가 실존했다는 글을 처음으로 쓴 학자는 노정우이며 1965년에 발행된 『인물한국사』에 수록되어 있다. 산청군청 前現職 담당자, 산청의 향토사학자들, 진주류씨 가문과 연구자들이 柳義泰가 실존했다는 주장을 하였다.

산청문화관광과 담당자²¹⁷⁾는 조선일보²¹⁸⁾ 인터뷰에서 “유이태와 류이태는 다른 사람”, “유이태는 거창유씨의 조상이고 류이태는 산청군에서 의술을 펼쳤던 다른 인물이라는 것이다.” “역사적 기록은 없지만 산청에서 류이태가 의술을 가르쳤다는 설화와 민담이 있었다. 산청에 모여 사는 진주유씨의 조상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산청군 당국자들과 진주류씨는 고증된 기록에 없던 류이태 복원했고 일대기와 영정을 만들었으며 동상 건립도 하였다²¹⁹⁾. 진주류씨는 족보에 없던 柳義泰를 2005년 새로이 등재했다²²⁰⁾.

신문에 기사화된 내용을 근거로 문화관광과 現담당자에게 “류이태가 의술을 가르쳤다는 설화와 민담”과 “晉州柳氏 조상이다.”라는 고증된 근거를 요

청²²¹⁾하였으나 고증된 근거를 보내오지 아니했다. 한의학박물관 사업을 시작할 때 담당자들에게 柳義泰 관련 근거를 요청²²²⁾했으나 고증된 근거를 보내오지 아니했다. 또한 『보고서』 작성시 담당자를 만나서²²³⁾ 고증된 자료를 요청하였더니 ‘신화(설화)’, 『인물한국사』, “서자는 족보에 실리지 않는다.” “류근모가 알고 있다.” 등의 구두 답변을 하였다. 편지²²⁴⁾로 고증된 근거 자료를 요청하였던 바 『醫林紙』, 『한국역사대사전』, 『브리태니커 세계백과사전』, 『한국인물탐사기4』, 『구약학보』 등을 柳義泰 실존 근거를 우편으로 보내 왔다. 한국브리태니커에 柳義泰가 허준의 스승이라는 고증된 출전 근거를 편지와 e-mail로 요청하였던바 “논란의 소지 및 참고자료의 문제로 그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답신을 보내왔다²²⁵⁾. 『한국인물탐사기4』와 『한국역사대사전』의 출전은 『인물한국사』이었고 『醫林紙』에는 柳義泰가

221) 조성계. 산청군청 現문화관광과장. 편지 보낸 일자 : 2012년 04월 02일/4월 12일/4월 26일.

① 柳義泰가 실존인물인지요? ② 柳義泰의 생몰년도(1516~1580)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요? ③ 柳義泰가 진주류씨 족보에 등재되어 있는지요? ④ 柳義泰가 허준의 스승인란 기록이 있지요? ⑤ 柳義泰가 산청군지, 산청향교지, 당성향교지,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문헌에 등재되어 있는지요?

222) 김동한. 산청군청 前문화관광과장. 편지 발송일자 : 2013년 01월 03일/02월 28일).

① 柳義泰가 실존인물인지요? ② 柳義泰가 산청에서 의술 활동을 하였는지요? 하였다면 그 근거와 의술활동지를 알려 주십시오. ③ 柳義泰가 소설 등의보감에 허준의 스승으로 나오는 것을 실존의 근거로 주장하였는데 역사적 고증을 거친 것인지요? ④ 柳義泰 실존근거로 한국구비문학대계를 제시하였는데 한국구비문학대계 내용이 역사적 고증을 받은 것인지요? ⑤ 柳義泰가 산청군지, 산청향교지, 단성향교지,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문헌에 등재되어 있는지요?

223) 강순경. 산청군청 前문화관광과장(일자 : 2012년 12월 31일). 장소 : 산청세계전통의학 엑스포사무실.

224) 강순경. 산청군청 前문화관광과장(일자 : 2013년 01월 03일/02월 28일/02월 28일).

① 柳義泰가 실존인물인지요? ② 柳義泰가 산청에서 의술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가 있는지요? ③ 柳義泰가 허준을 가르쳤다는 설화와 민담이 어디에 있는지요? ④ 柳義泰가 진주류씨 조상이 확실한지요? ⑤ 柳義泰가 산청군지, 산청향교지, 당성향교지,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문헌에 등재되어 있는지요?

225) e-mail 일자 : 2013년 2월 14일, 브리태니커에서 발송한 편지 일자 : 2013년 3월 05일.

217) 강순경. 문화관광과장.

218) 『조선일보』기사. 2009년 12월 19일.

219) ‘가묘, 묘비석, 흉상 건립, 기념비, 약수터, 이정표 건립, 『허준과 류이태 이야기』 출판. “또한 산청군청과 진주류씨는 기록에 없던 류이태를 복원했다. 류이태 일대기와 영정을 만들었으며 동상 건립에도 힘을 보탰다.” 『조선일보』기사. 2009년 12월 19일.

220) 柳雲. 일명 의태(義泰). 허준의 스승. 경남 산청군 금서면 특리 한방승지내 류이태 약수터 필봉산 능선유함.

『晉州柳乙西譜 권1』. 2005. p.201.

“또한 산청군청과 진주류씨는 기록에 없던 류이태를 복원했다. (중략). 晉州柳氏는 족보에 없던 류이태를 2005년 새로 포함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기사』. 2009년 12월 19일.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구암학보』는 『소설』에 출전 근거를 두었다. 담당자가 제공한 근거를 분석한 설명 자료를 보낸 후 고증된 자료를 제차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고증된 근거를 보내오지 아니했다. 따라서 담당자가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진주류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주류씨 세분²²⁶⁾을 접촉하였다. 가묘 『묘갈문』에 나타나는 류근모와 류영춘에게 실존 근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으나²²⁷⁾ 실존 자료를 보내오지 아니하였다. 2012년 12월 30일 류근모를 만나서 실존 근거를 요청했으나 “중앙에 가면 있다. 설화가 있다.”는 답변과 2005년에 발행된 족보만을 실존 근거로 제시하였다.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류보형을 만났다²²⁸⁾. 류보형은 “방송에 柳義泰가 나오길래 우리 조상으로 생각하여 2005년 족보에 등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근거는 없다.”고 말하였다.

향토사학자 손성모는 柳義泰의 출생지²²⁹⁾, 출생년도²³⁰⁾, 허준의 스승²³¹⁾ 그리고 의술활동지²³²⁾를 『산청의 명소와 이야기』에 밝혔다. 『선비의 고향 산

청의 명소와 이야기』는 柳義泰 출생년도를 밝힌 유일한 문헌이다. 손성모에게 柳義泰 관련된 고증된 근거를 요청하였다²³³⁾. 손성모는 산청군청의 담당자가 제공한 柳義泰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柳義泰에 관한 이야기를 썼다고 전화 통화시 밝혔다²³⁴⁾. 그리고 2005년에 발행된 『진주류씨족보』를 동봉하여 편지로 답변까지 보내왔으나²³⁵⁾ 柳義泰가 실존했다는 고증된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산청군청 당국자들과 향토사학자²³⁶⁾들은 “柳義泰

233) 편지 발송 일자 : 2013년 9월 10일/9월 25일, 많은 질문 중 일부만 적었다.

- ① 柳義泰가 1516년에 신안면 하정에 태어난 기록이 있는지요? ② 柳義泰가 의술을 펴었다는 기록이 있는지요? ③ 柳義泰가 진주류씨(1762 ~ 1983)족보에 등재되었는지요? ④ 柳義泰가 허준에게 의술을 가르친 고증된 기록이 있는지요? ⑤ 柳義泰가 금서면 왕산약수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지요? ⑥ 허준이 할머니의 고향인 산청으로 이주한 기록이 있는지요? ⑦ 柳義泰가 허준에게 해부용으로 자신의 몸을 제공한 기록이 있는지요?

234) 2013년 9월 24일 손성모 전화 통화.

“[전략] 산청군수 권순영이 산청의 전설에 관한 향토사를 써 달라고 하였다. 김동환 문화관광과장과 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쓴 것이다. 노정우가 쓴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보고 겪은 것은 아니다. [전략].”

235) 손성모. 2013년 10월 02일 마산일영동우체국 내용증명 3616903003045. “일전에 통화내용은 앞서 여러 차례 서면으로 문의해 오기에 그 성의로 보아 대화했던 것인데 그것을 논문으로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 내가 말한 요지를 확실하게 서면으로 알려야 되겠기에 직접 써서 보냅니다. (중략).” ① 1999년 당시 산청군 권순영 군수가 나에게 향토 사료에 관한 책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권유하기에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써 보기로 하였다. ② 그래서 각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자료를 얻고 지방 원로들과 유지를 만나 수집을 하여 집필하였다. ③ 그때 산청군청에서는 김동환 문화관광과장으로 부터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④ 한의학성지편의 자료는 그 당시 산청지방에서는 허준이 유이태(말음나는 대로)의 제자라는 말과 신연당 유이태는 허준보다 1세기 뒤의 인물이니 柳義泰가 정태柳氏에 있었다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었고 따라서 군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⑤ 그때 정태柳氏들은 족보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락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하였고 그 뒤에 듣는 바로 족보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족보사본 별첨) (하략).

236) “진주류씨 가문의 柳根樛씨가 이 고장의 사학자이고 함양 사친 통영군수와 경상남도사편찬위원장 중앙문화재 전문위원을 역임하신 梧木 金相朝님과 지방 사학자이며 한약방을 운영하신故권재우님과故강연우 류영춘 류무림(하략) 산청 교육청 장학사 이천규 글. 『산청한의학박물관 내에 있는 류의태 가묘 묘비석의 류의태 약전』.

226) 류근모(산청 신안 거주), 류영춘(진주시 거주), 류보형(군포시 거주).

227) 류근모(일자 : 2012년 4월 18일/4월 26일/5월 07일), 류영춘(일자 : 2013년 8월 19일).

228) 일자 : 2013년 6월 12일 장소 : 군포시 당정동 채선당. 동석자 : 류민상(柳徠 중손).

229) “류의태는 조선 중기 명종 때의 명의로서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상정마을)에서 출생(하략).” 손성모/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선비의 고향 산청의 명소와 이야기』. 현대문예. 2000. p.381.

230) “柳義泰는 (중략)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상정마을)에서 출생(1516년 추정)하여 한국의학의 근간을 세운 전통의학의 선구자요 태두이다.” 손성모/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선비의 고향 산청의 명소와 이야기』. 현대문예. 2000. p.381.

231) “괴팍한 성품으로 제자를 양성치 않다가 허준을 만나 그의 천부적인 재능과 성실함을 꿰뚫고 의술을 전수하였으며 특히 의술의 발달을 위해 제자에게 자신의 몸을 해부용으로 제공한 살신성인의 스승으로 전해지고 있다.” 손성모/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선비의 고향 산청의 명소와 이야기』. 현대문예. 2000. p.382.

232) “당시 한약제조에 사용하던 약수로 전해지는 썩터가 금서면 화계리에 현존하고 있어”(하략). 손성모/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선비의 고향 산청의 명소와 이야기』. 현대문예. 2000. p.382.

가 庶子라서 『晉州柳氏族譜』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²³⁷⁾는 주장을 하고 있다. 庶子들이 족보에 등재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조선시대에도 庶子들도 족보에 등재되어 있다. 庶子라서 『晉州柳氏族譜』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柳義泰의 外家, 妻家, 아들 柳道知의 妻家 族譜에 柳義泰가 등재되어 있어야 했으나 外家, 妻家和 아들의 妻家도 알려지지 않았고 外家, 妻家和 아들의 妻家 族譜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柳義泰가 남긴 著書도 없고 일제강점기에 발행한 『동유학안』과 『조선환여승람』 산청/단성 명망편에 柳義泰가 등재된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 『산청군지』, 『산청향교지』 및 『단성향교지』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柳義泰 아들 柳道知가 惠民署 奉事로서 중국을 방문²³⁸⁾한 것이라면 『王室記錄』에 등재되어 있어야 했으나 柳道知는 『王室記錄』 어디에도 보이지 아니했다. 향토사학자 晉州柳氏 류근모를 만나서²³⁹⁾ 柳義泰의 실존여부와 실존근거를 요청하였으나 고증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²⁴⁰⁾.

이천규가 쓴 柳義泰 가묘 『묘갈문』에는 문헌에도 보이지 않은 柳義泰의 沒年(1580년)이 기록되어 있었고 또한 柳義泰의 출생지, 허준 스승, 의술활동지, 유품과 약수터가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천규에게 柳義泰 관련 고증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²⁴¹⁾ 고증된 자료도 보내오지 아니했고 어떠한 답변도 보내오지 아니하였다.

柳義泰 先行研究者 구연희는 柳義泰의 출생지, 출생년도(1516년)와 의술활동지를 그의 논문²⁴²⁾에 밝혔다. 구연희에게 柳義泰의 출생지, 생몰년도와 의술활동지에 대한 고증된 자료를 요청했으나²⁴³⁾ 보내오지 아니하였다.

산청군청 당국자들, 柳義泰 先行研究者, 향토사학자들, 진주류씨 관계자들은 柳義泰의 실존과 설화가 있었다는 근거를 보내주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柳義泰의 실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2) 산청군청과 한의학박물관에서 발행한 문헌

산청군청에서 최근 발행한 柳義泰 관련 문헌은 『산청한의약박물관도록』(이하 『도록』이라 칭한다.), 『한의약보고서』²⁴⁴⁾와 『지리산 산청 약초와 민간요법 기행』²⁴⁵⁾ (이하 『약초보고서』라 칭한다)와 『류의태와 허준』²⁴⁶⁾ 등이 있다. 『도록』에는 劉以(爾)泰와 柳義泰가 모두 수록되어 있으나 劉以(爾)泰에 관하여 사실 기반으로 기록한 것²⁴⁷⁾과 그의 저서 『痲疹

237) “류의태 선생은 서기 一五一六年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상정(당시지명 산음현 정태)에서 진주류씨(晉州柳氏) 十三세조(池 一四六一年生) 十四세조(夢星一四八五年生) 집안의 서자 신분으로 출생하여 서기 一五八〇년에 별세한 것으로 전해 오고 있으나 정작 류씨 집안의 족보에는 흔적이 없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 양반은 의술을 공부하지 않았고 서자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찾아보기 더욱 어렵다.” 『류의태 가묘 묘갈문』. 한의학박물관. 2005. 04. 05.

238) “지난번 사행을 배행하여 북경에 다녀온 유봉사(柳道知)로부터 중원의인전(中原醫人傳)이라는 책을 하나 얻어 보았는데 그 속에 보제방(普濟方)과 구황본초(救荒本草)를 저술한 주숙의 얘기가 있었소”. 『소설 동의보감 하권』.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0. p.153.

239) 일자 : 2012년 12월 30일 시간 : 2시 20분, 장소 : 산청군 신안면 원지 녹지다방.

240)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다. 중앙에 가면 관련 근거가 있다. 두 분 자매가 있었는데 한분은 허준 조부 許混에게 시집을 갔고, 다른 한 분도 양친허씨(許琛)에게 시집갔다. 庶子는 『晉州柳氏族譜』에 실리지 않는다. 故金相朝, 故권재우, 故강연우의 고증을 받았다.”고 하였고, 2005년에 발행된 『晉州柳氏族譜』를 제시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류근모와의 대화에서.

241) 받는 사람 : 이천규. 발송일자 : 2012년 4월 16일/4월 26일. 질의 내용중 일부분만 표기하였다. ① 柳義泰가 실존인물인지요? ② 柳義泰가 진주류씨 어느 파에 등재되어 있는지요? ③ 柳義泰의 생몰년(1516~1580)의 근거가 있는지요? ④ 柳義泰가 신안 정태마을에 태어난 근거가 있는지요? ⑤ 柳義泰가 진주류씨 13세(池), 14세(夢星) 후손이 정확인지요? ⑥ 柳義泰가 허준의 스승인지요?

242) • 구연희. 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名醫 柳義泰의 자취 연구’. 『영남학회지 제16호』. 2009. p.383. • 구연희. 안상우. ‘의료설화에 나타난 의학적 처치의 사실성과 의미 - 류의태 의료설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제23권 1호』. 2009. p.12.

243) 구연희. 한국한의학회연구원. 편지 발송일자 : 2013년 9월 07일.

244) 발행년도 : 2009년 11월.

245) 발행년도 : 2009년 12월.

246) 산청군수. 도서출판 인디. 경상남도. 2009.

247) “儒醫의 전통을 잇는 인물로서 전해지는 인물로 劉爾泰(1652~1715)가 있다. 유이태는 숙종 연간에 의약동참으로 몇 개월간 근무하면서 숙종의 어의를 지냈다. 이때 공로를 세워 안산구수를 제수 받았고 품계가 승록대부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도록』. p.157.

<표12. 『한의약보고서』 ‘劉以泰 설화와 유적지’를 ‘柳義泰 설화와 유적지’로 변경한 사례 비교표>

오 류		고 증 및 실 제	
『한의약보고서』 82p	강원도 포수 류의태.	대계 7-1. 월성 현곡설화 76	유이태
『한의약보고서』 91~93p	류의태는 경상남도 진양땅 자매실	『진주옛이야기』	유이태 劉以(爾)泰
『한의약보고서』 94p	류의태와 피병이야기	곽의숙 논문	유이태와 피병이야기
『한의약보고서』 94p	명의 류의태 이야기	곽의숙 논문	명의 유이태 이야기
『한의약보고서』 94p	명의 류의태	곽의숙 논문	명의 유이태
『한의약보고서』 94p	류의태와 상사병 처녀	곽의숙 논문	유이태와 상사병 처녀
『한의약보고서』 83p	류의태 왕산약수터	고증 : 강무성	장군수:유이태가 장군에 약수를 담아 생초까지 날랐다. 劉以泰 마진편 통치편 약수터로 추정됨.
『한의약보고서』 84p	류의태 오전리 약수터	고증 : 이호원	찬샘이 : 劉以泰가 심리치료 하였던 찬샘이 약수터.
『한의약보고서』 95p	류의태가 말년에 낚시를 즐겼다는 낚시터	고증 : 민영채	“劉以泰가 말년에 산청 생조면 월곡리 압수 필소에서 낚시를 즐겼다.”
『한의약보고서』 90p	다름재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고증 : 유경연, 위천면장	다름재 : 거창 마리면 월계리와 위천면 남산리 중간
『한의약보고서』 90p	황산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고증 : 유경연, 거창유씨 종친회	황산(劉以泰 선영) : 거창 위천 황산리 15번지

篇』을 정조10년에 저작한 것으로 잘못 기술하고 있다. 반면에 柳義泰는 전설과 설화를 기반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의약보고서』 1장의 2 「산청의 의약문화」에 柳義泰의 출생지와 출생년도, 의술활동지, 설화, 서실, 약수터, 낚시터, 선영 황산, 다름재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柳義泰의 출생지인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상정마을²⁴⁸⁾에서 그가 태어났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 출생년도 1516년(중종 11년)에 대한 어떠한 문헌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생하였다고 하였다²⁴⁹⁾. 산청군 금서면 화계 지구에서 의술활동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²⁵⁰⁾ 유이태 설화가 채록되어 있는 기록이 보이지 않았다.

<표12>에서 『한의약보고서』에는 ① 『대계』, 『진주 옛이야기』와 『곽의숙 논문』 등에 수록되어 있는 ‘劉以泰 설화’를 ‘柳義泰 설화’로 변경하였다²⁵¹⁾. ②

왕산약수터 아래의 화계리 주민과 인근 동네의 주민들은 ‘약물통’, ‘장군수’, ‘왕산약수터’로 부르는데 『한의약보고서』에는 ‘柳義泰 약수터’로 바뀌어져 있다. ③ 劉以泰가 건립하였다는 사실²⁵²⁾을 ‘柳義泰가 건립하였다는 사실’²⁵³⁾로 바꾸었다. ④ ‘劉以泰가 말년에 낚시를 즐겼다는 낚시터’를 ‘柳義泰 낚시터’로 바꾸었다. ⑤ 劉以泰가 祖父 劉有道에게 문안 드리기 위하여 넘어갔던 다름재 위치가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와 위천면 남산리’ 중간에 있는데 ‘전라도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그리고 劉以泰 선영 황산은

251) • 왕산 약수터. 『2009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학 문화연구』 ‘산청의 의약문화’. 산청군/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p83. • 오전리 약수터. 『2009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학 문화연구』 ‘산청의 의약문화’. 산청군/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p84.

252) “오공께서 만년에 棲息之計를 세우시고 서실을 創營하신 것이 이미 일년이 넘었는데 올 봄에 두창을 피하는 장소로 삼으셨다. 한 마을이 일제히 일어나 열마 안되어 완성이니 오공께서는 서실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셔서 여러 차례 내왕하셨다.”
“吾公晚有棲息之計創營書室已有年餘而當此今春兼有避痘之所齊起一隣不日成之吾公喜有得所數巡未泯” 朴季亮. 『유이태 문집』.

253) 『2009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학 문화연구』. ‘산청의 의약문화’. 산청군/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p95.

248) 『2009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학 문화연구』 ‘산청의 의약문화’. 산청군/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p.73.83.

249) 『2009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학 문화연구』 ‘산청의 의약문화’. 산청군/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p.73.

250) 『2009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학 문화연구』 ‘산청의 의약문화’. 산청군/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p.73.

<표13. 『약초보고서』 vs 광의숙 논문 비교표>

『약초보고서』 오류	『광의숙 논문』
류의태와 피병아이 (산청 생초 구평 배위병)	劉以泰와 피병아이 (산청 생초 구평 배위병)
명의 류의태 이야기 (산청 생초 구평 배위병)	명의 劉以泰 이야기 (산청 생초 구평 배위병)
명의(名醫) 류의태 (경북 월성 현국 김원락)	명의(名醫) 劉以泰 (경북 월성 현국 김원락)

‘거창 위천 황산리 황산 15번지’에 있는데 ‘전북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에 있는 것으로 변경 기록되어 있다. 산청군청에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다.

<표13>을 보면 『약초보고서』 名醫의 고장 「산청편 약초와 관련된 명의에 관한 설화」에서 ‘劉以泰’를 ‘柳義泰’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산청군청에서 『류의태와 허준 이야기』를 간행하였다. 류의태가 실존하였다는 고증된 근거를 산청군청 당국자들에게 요청하였으나 그들로부터 고증된 근거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류의태와 허준 이야기』의 발행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IV. 결 론

1965년 노정우가 진주의 ‘허모’에게 전화 통화로 들은 산청의 名醫 劉以泰를 深到있는 검토 없이 柳義泰로 허준의 스승으로 설정하여 『인물한국사』에 발표하였다. 노정우의 주장은 별도의 고증 없이 『인물백과사전』 등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인용되었다. 이러한 柳義泰가 『소설』과 ‘드라마’에서 등장하면서 柳義泰가 허준의 스승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되었다.

柳義泰를 학계에 발표한 노정우는 고증하지 못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였다. 『소설』을 집필할 때 옆에서 이은성을 조언(助言)했었던 이진섭도 柳義泰가 허준 스승이라는 고증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드라마 ‘허준’의 집필가 최완규도 허준의 스승이 柳義泰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柳義泰의 실존과 설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산청군청 前現職 당국자들, 산청군 향토사학자들, 柳義泰 가요 『묘갈문』에 등재된 진주류씨 족보 전문가, 柳義泰 연구자들에게 고증된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고증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증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柳義泰가 실존하였다는 고증된 기

록과 녹취된 설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증된 기록과 녹취된 기록이 없다는 것은 柳義泰가 실존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음이 비슷한 이름의 名醫說話가 채록되어 있다는 것은 실존의 名醫의 說話에서 과생되었다는 것이다.

산청군청에서는 고증되지 않은 내용을 쓴 노정우의 『인물한국사』, 『인물한국사』를 바탕으로 쓴 『한국역사대사전』, 『브리태니커 세계백과사전』 및 『한국인물탐사기4』, 『대계』의 설화, 『소설』과 『소설』을 바탕으로 쓴 『구암학보』, 드라마 ‘허준’ 그리고 한의 학계와 향토사학자들의 고증되지 않은 정황을 바탕으로 산청한방단지를 개발하였다. 또한 군청당국자들과 향토사학자들은 소설과 드라마, 『대계』의 柳義泰 설화 그리고 “서자는 족보에 실리지 않는다.” 논리를 만들어 柳義泰가 실존했다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근거자료는 柳義泰의 행적이거나 문헌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 말에 의한 추정에 그치고 있다. 산청군청에서는 柳義泰가 실존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향토사학자 손성모에게 柳義泰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산청의 명소와 이야기』를 저술하였다. 또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두 개의 『보고서』²⁵⁴⁾와 『허준과 류의태 이야기』를 발간하였다. 고증되지 않은 이와 같은 근거들을 가지고 산청한의학박물관과 산청박물관은 柳義泰를 허준의 스승으로 전시하고 있었다.

劉以泰와 柳義泰를 비교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劉以泰는 생몰년도, 출생지, 의술활동지, 관직, 묘소, 묘갈문 등 고증된 기록이 있으나 柳義泰는 보이지 않는다. ② 劉以泰는 居昌劉氏 최초 族譜에서 최근 族譜 등 모든 족보에 등재되어 있으나 柳義泰

254) 『2009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학 문화연구 보고서』, 『지리산 산청 약초와 민간요법 기행』.

는 1762년부터 2005년 이전의 『晉州柳氏族譜』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2005년에 발행된 『晉州柳氏族譜』에만 등재되어 있다. ③ 劉以泰는 外家, 妻家, 아들 妻家, 사위 族譜 등 모든 인척들의 족보에 등재되어 있으나 柳義泰는 外家, 妻家, 아들 妻家の 기록이 없다. ④ 劉以泰는 『저서』, 『문집』, 『추천장』 등 저서, 문집과 유품을 남겼으나 柳義泰는 남긴 저서, 문집과 유품이 보이지 않았다. ⑤ 劉以泰는 왕실기록 뿐만 아니라 『지방지』, 『지리지』 및 『사우문집』에 등재되어 있으나 柳義泰는 등재되어 있는 문헌들이 보이지 않았다. ⑥ 『대계』 '거창 위천 설화 32', '의령 칠곡 설화 59'의 주인공 柳義泰는 劉以泰로 판명되었다. 또한, 『대계』 의령 봉수 설화 25, 성주 대가 설화 56 및 거창 남상 설화 16의 주인공 柳義泰는 劉以泰가 議藥同參한 이야기가 구전되면서 변경되었다. ⑦ 몇몇 醫家들이 비슷한 이름으로 채록되었듯이 劉以泰도 유의태로 채록되었다. ⑧ 산청군청에서 발간한 보고서의 柳義泰 유적지는 劉以泰 유적지로 그리고 柳義泰 설화는 劉以泰 설화 판명되었다. ⑨ 劉以泰는 고증된 근거자료와 유품이 전해지고 있으나 柳義泰는 고증된 자료와 유품을 찾을 수 없었다.

劉以泰는 생몰년도, 출생지와 거주지, 묘소, 저서와 유품, 親家, 外家, 妻家, 출생지 지역의 문헌 기록, 활동지의 문헌 기록, 『왕실기록』, 『사우들의 문집』 등 인물을 추적할 때 고려하여야 할 모든 조건에 일치한다. 그러나 柳義泰는 역사적 인물을 추적할 때 고려하여야 할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일치된 것이 없다.

유이태(劉以泰)가 유의태로 불린 것은 경상도에서 '이'와 '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발음 때문에 나타난 현상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노정우가 『인물한국사』에 발표한 神醫 柳義泰는 실존인물이 아니고 전해들은 劉以泰의 모델인물 이다. 또한 설화속의 유의태는 종이가 부족하던 시대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산청의 神醫 劉以泰로 판명되었다.

劉以泰는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뜻을 접고 醫學에 입문하여 3년만에 의술에 통달하였고 30세에 醫術의 境地에 도달하여 널리 알려졌다. 그는 1713년

숙종의 환후가 발생하였을 때 나라의 부름을 받아 議藥同參에 참가하여 御醫를 지냈다. 숙종의 患候를 고친 공로로 말 한필을 받았고 승록대부 품계와 안산군수를 제수 받은 것으로 『왕실기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곧바로 향리 산청으로 귀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劉以泰는 조선왕조에서 가장 무서워했던 癩疹이 1680년과 1692년 전국을 휩쓸고 있을 때 수많은 癩疹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1696년 마진 전문치료서 『癩疹篇』을 최초로 저술하였으며, 癩疹 치료의 문을 열었다. 또한 가난하여 醫員을 찾아가기가 힘든 병든 환자를 위하여 향약을 처방할 수 있는 경험방 『實驗單方』과 『麟西間見錄』, 劉以泰 후손들의 허락 없이 가져간 『의서 2권 저서』, 1940년대 초 화재로 소실된 『침술서』와 『부인과 의서』를 남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劉以泰는 반상(班常)과 적서(嫡庶) 그리고 남녀 구별이 엄격했던 봉건사회에서 貴賤, 親疎, 貧富, 民官, 男女老少를 구분하지 않고 일생동안 오직 무서운 病魔와 싸우는 患者들 위하여 愛民精神을 펼친 조선의 名醫이다.

<별지1. 마진편 발간사>

유선생은 우리 조선반도의 명이다. 세상을 떠난지 몇백년이나 되었는데도 천민이나 아이들까지 아직도 그의 명성을 말하고 있으니 당시 선생의 덕망과 의술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선생의 유적이 보존되지 못했음을 한스럽게 여겨왔다. 지금부터 20여년전 어떤 손님이 나를 찾아와 한권의 책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 선조의 유적이며 의원에게는 참으로 귀중한 것이므로 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요. 나는 불초한 후손으로 집안은 가난하고 무식하오. 그러나 선조의 유고가 어떤 물건인데 먼저 쌓인 상자에 넣어두어 날고 좀 먹은 책이 되게 하겠소. 만약 집안에서 보존할 수 없을 것이라면 차라리 뜻있는 의원에게 주는 것이 나을 것이니 오늘 특별히 선생을 만나러 온 것 이요.”라고 하였다. 나는 유선생의 유적이라는 말을 듣고 정성스럽게 받아들이고 읽어 보았다. 그 내용은 선생께서 평소

에 경험하신 마진 치료법을 저술한 것이니 이로부터 선생의 고명하신 경력을 알 수 있었다. 대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마진의 치료법은 미비점이 많았는데 이 책은 마진을 처음 앓을 때부터 반진이 솟고 견히며 기타의 잡증을 치료하는 방법까지 통틀어 설명하고 조목별로 해설하였다. 또한 책을 펼치면 환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니 참으로 세상에 드문 보배였다. 내가 이 책을 얻은 뒤 20년 동안 시험해 본 것이 많은데 증세에 따라 약제를 투여하면 들어맞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어찌 보통의 책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생각건대 선생의 유적을 먼지 속에 묻어둘 수 없으며 세상에 남긴 공덕은 널리 어수선한 세상을 구제하는 것만 못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책으로 만들어 널리 전하노니 이를 유념하여 깊이 새겨 열람해 본다면 의학계의 보배가 될 뿐 아니라 병을 앓는 집안의 중요한 明鑑이 될 것이다. 또한 세속에서 자손을 기르는 요체가 되지 않겠는가? 경오년 동지달 후학 박주현 씀.

劉先生即我朝鮮半島之名醫也沒後幾百年與撞兒童尙稱其名當時先生之德廣術高下想之然余常恨先生之遺蹟不存矣自茲二十餘年前客有過我袖示一券書曰比即吾先祖之遺蹟眞醫家之所貴重故來傳於子而如我不肖後裔家貧蔑學先世遺稿未知何等件物拖置塵箱竟屬荒篇蠹章而已如其不得家藏不若歸之於謹慎醫家今日特來見子云矣余聞劉先生之遺蹟乃盥手拜受而讀之是先生平素之癩疹經驗方著術者而先生之高明精力從比可知矣蓋癩疹治法溯古未備者因癩疹之古無而今有也一見比編疹之始痛發斑消斑其他雜症之治法通遂言論條分縷解可以開卷瞭然眞罕世之寶余之得比後二十餘年所試者不爲不博而對症投劑發無不中豈可尋常書編可比哉自想先生之遺蹟不可混沒於塵臼之中遺世公德莫如廣濟於劫海之上茲將付之手民傳之以博幸望留(留)心熟閱則非但醫界之爲寶寔要病家之明鑑抑非人世間育養之要訣歟歲在庚午至月後學朴周憲謹記

<별지2>. 『通德郎新淵堂劉公孝行狀』: 유이태의 효행을 표창해 달라고 민두참(255) 등 지방 유림들이

청원한 狀啓.

화민 유학 민두참, 이초연, 오이격 등 99인은 삼가 목욕재계하고 합하(閣下)께 글을 올립니다. 앞드려 들자오니 사람의 착한 일이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행동을 보고 기뻐하며 추천하여 숨기지 않는 것 만한 것이 없다고 하니 이는 곧 인륜을 바로잡는 하늘의 바른 도리입니다. 합하께서는 살피주시옵소서. 저희들 향중(鄕中)의 사인(士人) 유이태는 사헌부감찰 영계공 환(權)의 십대손이며 의사공 명개(名蓋)의 현손(玄孫)이며 효자 이탄공(離灘公) 유도(有道)의 손자이고 증병조판서 행경상좌수사(贈兵曹判書 行慶尙左水使) 이의립(李義立)의 외손으로 효우의 행실이 어려서부터 독실하여 아버이를 섬김에 낮빛을 편안히 하고 양지(養志)로서 봉양하여 겨울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며 저녁엔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새벽에는 문안을 드리며 자기의 본분을 극진히 하였다. 일찍이 10여세에 어머니 상을 당하자 주야로 애통해하고 삼년간의 제사 의례를 예절에 맞추었으니 나물과 과일도 먹지 않고 여막(廬幕)을 떠나지 않은 것은 나이 든 선비나 학식 있는 유자(儒者)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못할 정도였다. 향리의 사람들이 탄복치 아니한 사람이 없었으며 그 타고난 효심을 칭송하였다. 또 유이태와 할아버지와 아버지 등 삼대가 모두 역질(전염병)을 앓지 않아서 집을 떠나 피해있었는데 지난 계해년(1683)에 그의 할아버지 유도(有道)가 갑자기 역질에 걸렸다. 아버지 윤기(潤祺)가 곁에서 탕약을 시중하였는데 유이태가 병에 걸릴까 염려하여 절친한 향리의 친구에게 부탁하여 곁에 오지 못하도록 만류해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조부가 불행히 세상을 떠나자 분주히 달려 들어가 상을 모시었다. 겨우 초종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이어 병에 걸리자 이태가 곁에서 더욱 정성으로 탕약을 시중하였고 친지신명께 기도하여 자기가 대신하게 해달라고 청하여 아버지도

255) 閔斗參(1657~1740) 字 汝克, 여흥민씨, 산청 금서 금석. 絶孫. 父 仁聲(1628~?). 通政大夫. 初 朴以復. 1602~1667, 司宰監 參奉. 『여흥민씨 족보 1권』. 1988. p176.

완전히 병이 나았고 이태 또한 병에 전염되지 않았으니 이태의 지극한 효성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신명을 감동시킬 수 있었겠는가.

지난 정축년(1697)에 큰 도적들이 집안에 쳐들어와 아버지가 불행히도 칼에 맞았는데 이태가 그때 타지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였다. 도중에 그 소식을 듣고 놀라고 기가 막혀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불효자로 자처하였다. (아버지의) 상처가 위중하였으니 여러가지로 약을 써보고 고름을 빨아내어 신속하게 병을 낫게 하여 천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또한 이태의 시종일관한 효성 때문이었다. 계모(합천이씨) 섬기기를 생모와 같이하였고 배 다른 형제들도 친형제들과 다를 바 없이 대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모·형제 사이를 이간질 할 수 없었다. 지난 정해년(1707)에 아우 이식(以澁)이 역병(疫病:전염병)에 걸렸는데 우애가 지극히 돈독하여 병구완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여러 가지로 약을 먹였으나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때가 매우 추운 겨울인데도 목욕재계하고 신께 기도하였다. 끝내 구하지는 못하였으나 역병의 기운이 이태를 범하지는 못하였다. 이 또한 돈독한 우애가 신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오호라, 아버지를 위하여 역병을 구완하였으니 역병이 범하지 않았고 아우를 위하여 역병을 구완하였으니 역병이 범하지 못한 것이다. 이 어찌 이태가 천지신명을 지극히 감동시킨 때문이 아니겠는가. 또한 효성과 우애를 미루어 종척(宗戚)과 인족(姻族) 간에 화목하였다. 일찌기 을병년(1695-1696)의 참혹한 기근 때에 친척들의 굶주림을 안타까이 여기어 좌우도의 부유한 친구들에게 급히 알리어 거의 백 여석의 곡식을 구하였다. 이태가 궁핍한 정도를 헤아려 곡식을 내어 구할하고 다른 곳에도 보내었다. 처 조씨가 그가 없을 때를 틈타 연경답(連耕畝) 수 두락을 사들였는데 이태가 집에 돌아와 그 연고를 물었다. 처가 말하기를 “지독하게 가난한 선비의 집이므로 이 논을 사서 장차 연명해 갈 자본으로 삼으려 한 것이니 안된다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다. 이태가 말하기를 “이렇게 기근이 든 때에 전토(田土)를 사들이고 족인들이 굶주리는 것을

서서보지만 한다면 이게 차마 할 노릇이요?” 라고 하고는 전토의 값을 돌려받아 궁핍한 친족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러므로 주위에서 보고들은 이들이 기뻐하고 탄복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니 어찌 말세에 드물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기뻐하며 귀로 듣고 진심으로 탄복하였으니 이에 정식으로 의논한 후 합하게 우러러 진달하오니 합하께서는 영문(營門)에 전보하시어 정표(旌表)를 세워 표창해 주시기 바라면서 삼가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진달하옵니다. 임진(1712) 7월 초3일.

제사(題辭)에 이르기를, 유이태의 아버지를 섬기고 효성을 다하는 정성과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는 의리는 지극히 가상하고 향중의 공의도 또한 모두 모아졌으나 본현(산음현)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일로 상고 시행할 일.

原文: 通德郎新淵堂劉公孝行狀

化民幼學 閱斗參李楚行吳以格等九十九人 謹齋沐上書于二天閣下 伏以聞人之善 莫不悅應 見人之美 舉而不匿者 是乃秉彝之常天也 伏惟閣下垂察焉 民等鄉中士人劉以泰 乃司憲府監察瀋溪公權之十代孫 義士公名蓋之玄孫 孝子離灘公有道之孫 贈兵曹判書行慶尙左水使李義立之外孫也 孝友之行 自兒至篤 其於事親 色愉以安 養志以奉 冬溫夏清 昏定晨省 極盡其誠 而曾在十餘歲 喪其慈母 晝夜哀慟 三年祭儀 固執禮節 不食菜果 不離廬所 雖老士宿儒 亦無加矣 鄉里之人 無不歎服 而稱其天性之孝 且以泰祖與父 連三世未疫 舉家謹避 去癸亥 其祖有道 奄得疫疾 其父潤祺 在側侍湯 而憫其以泰之干犯也 請觸于鄉里 親舊最切者 使之挽執 故不敢入 及其祖不幸 捐子之時 奔入喪側 纔過初終 而其父又得其疾 以泰待湯愈謹 祝天禱神 請以身代 故其父得全其疾 而以泰則不染其疾病 非以泰至誠之孝 何其感神 至於此哉 今去丁丑 大賊突入家中 其父不幸逢刃 以泰其時適出他所 未及還來 路聞其奇 驚慟氣色 晝夜泣泣 自處不孝

所傷極重 多方試藥 吮其濃汁 快蘇其疾 永保天年
而終 此亦以泰有始有終之孝也 事其繼母 如其生
母 待其異母弟 無異同母弟 故人無間於其父母昆
弟也 去丁亥 其弟以濕 奄得染疾 而友愛至篤 不
憚救病 服藥多方 及其難救之境 時丁凍月 沐浴禱
神 而竟至不救 然染氣終 不犯於以泰 此亦友愛至
篤 感神之致也 噫 爲親救疫而疫不犯焉 爲弟救染
而染不犯焉 茲豈非以泰感天感神之致乎 推之孝友
睦於宗戚 宜於嫗族 曾在乙丙 慘其諸族之飢餓 告
急於左右道 富饒親舊處 則幾至百餘石之數 故以
泰量其窮乏 出而救活 適出他所 其妻曹氏 瞰其無
也 買其連耕畜數斗 則以泰還家問其故 其妻云 至
貧儒家 買此畜 將爲連命之資 未爲不可云爾 則以
泰曰 當此飢歲 買田土 而立視族人之飢 是可忍乎
是可忍乎 還推其價 分給於窮乏諸族 故遠近見聞
無不悅服 茲豈非末世之所罕見也 民等目見而心悅
耳聞而誠服 茲將公議 仰陳于閣下 伏願閣下 轉報
營門 以爲旌表 獎權之地 謹冒昧以陳 壬辰七月初
三日²⁵⁶⁾

<별지3. 神醫柳義泰先生墓碑文> : 산청 한의학박
물관 柳義泰 가묘.

“옛부터 의술의 대명사로 전해오는 말에 중국
에는 화타(華佗)가 있고 동방에는 의태(義泰)가
있다고 한다. 자신의 몸을 제자에게 해부용으로
기꺼이 바쳐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을 몸소 보여
주신 이가 있으니 그가 곧 이 고장 출신의 신의
(神醫) 류의태(柳義泰) 선생이다. 류의태 선생은
서기 一五一六年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상
정(당시지명 산음현 정태)에서 진주류씨(晉州柳
氏) 十三세조(池 一四六一年生) 十四세조(夢星
一四八五年生) 집안의 서자 신분으로 출생하여
서기 一五八〇년에 별세한 것으로 전해 오고 있
나 정작 류씨 집안의 족보에는 흔적이 없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 양반은 의술을 공부하지 않았고 서자이기 때
문에 그 기록을 찾아보기 더욱 어렵다. 허준이
어렸을 때 산청에서 성장하였고 그의 의학적인

재질과 지식을 키워준 스승이 바로 류의태 선생
으로 그가 산청지방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허준의 조부인 허훈(許璉)이 경상우
수사를 역임하였고 조모는 진주류씨 十二세로서
양천허씨와 진주류씨 족보에 기록되어 있기 때
문이다. 진주류씨 문중에서는 선생이 태어난 정
태마을에서 약 三킬로미터 떨어진 산청군 신안
면 외고리 양지마을(龜潭)에 허준이 살았던 것
으로 굳게 믿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임을 짐작
할 수 있다. 류의태 선생에 대하여 전해 오는 이
야기가 많이 있다. 지금의 경호강 옆 지리산 가
는 길 새고개에는 약초꾼이 십리는 줄을 서서 오
갔다고 하며 선생이 당시 밀양고을에 자주 왕래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그 곳 만석꾼 최
씨가문의 무남독녀가 죽음의 고비에서 류의태
선생의 탁월한 의술로 되살아나 평생 동안 선생
의 후처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하는데서 유래
한다 그리고 선생이 살았던 정태마을에는 괴천
수(槐泉水)라는 샘터가 있고 그 표지석에는 임
신년(壬申年)에 세워졌다는 글자만 새겨져 있을
뿐 정확한 연대를 알 수가 없다. 이 샘은 하늘이
내린 물로서 샘이 마르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말이 유래하고 있다 그러나 정태마을은 수 백년
묵은 회나무와 함께 지금까지도 진주류씨들이
단일집성촌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당시 선생
이 한약 제조에 사용했던 약수로 전해지는 샘터
(일명 약물통)가 지금도 금서면 왕산에 있다. 이
약수는 피부병 위장병 등은 물론 불치병에도 효
험이 있다고 하여 사람들이 이를 류의태 약수터
라 부르며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특히
이 약수로 반위(反胃 胃痛)를 다스렸다고 전해
지는 것은 현대의학에서도 경이로운 일로 평가
되고 있으며 선생의 유품은 정태의 아랫마을(하
정) 앞 강가에 묻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모
가 주신 신체를 훼손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
었던四五〇여 년전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제자 허준에게 자신의 몸
을 제공하여 우리나라 해부학의 효시를 이룬 류
의태 선생의 희생정신은 가히 살신성인의 귀감
이 아닐 수 없다. 선생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없
었던들 동의보감과 허준이라는 민족의 자랑스
라마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동안 서자 신

256) 소장자 : 유성호, 유이태 9대손,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송정.

분이라는 이유로 선생의 업적을 발굴하는데 소홀했으나 최근 방송국에서 동의보감 허준 드라마가 방영되고 허준의 스승인 류의태 선생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선생의 행적이 재조명되고 특히 산청군이 이곳 전통한방휴양관광지에 선생의 단소(壇所)를 마련하여 류의태 선생의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높이 기리고자 함은 꼭 다행스런 일로 여겨진다. 이 글은 현재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정태에 사는 진주류씨 가문의 柳根樓씨가 이 고장의 사학자이고 함양사천통영군수와 경상남도사편찬위원장 중앙문화재전문위원을 역임하신 梧木 金相朝님과 지방사학자이며 한약방을 운영하신 故권재우님과 故강연우 류영춘 류무림님의 조언과 진주류씨 족보를 바탕으로 초안해 온 것을 첨삭하여 정리하여 비문을 작성하였다.” 西紀 二〇〇五年 四月 五日.

山淸 教育廳 獎學士 星州人 李千圭 짓고 쓰다²⁵⁷⁾.

참고문헌

<논문>

1. 강신옥. '명의담에 나타난 인간 및 세계인식.' 『민속어문논총』. 계명대학교출판부. 1983.
2.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名醫 柳義泰의 자취 연구'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원 2009 영남학 제16호』. 2009. p.381, 383. pp.379~415.
3.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에 나타난 의학적 처치의 사실성과 의미-류의태 의료설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09. 제23권 1호』. 2009. pp.11~22.
4. 김명수. '口碑名醫전설연구.' 『경산대학교 석사논문』. 1997. p.31.
5. 김중권. '마진편의 저술시기 분석.' 『서지학연구 제51집』, 서지학회. 2012. pp.303-313.
6. 노정우. 허준. 『인물한국사』. 서울. 박우사. 1965. pp.358~359.

7. 『2009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약 문화연구』. '산청의 지방의학의 학술적 가치.' '유이태 마진편.' 산청군/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p.188, 196, 245. pp.71~141, 191~192.
8. 손홍렬. '조선후기의 醫書編纂 - 영정조대를 중심으로.' 『충북사학회. 2000. 제11.12합편』. 2000. pp.320~321.
9. 오준호. 박상영. 안상우. '왕실기록과 의서 속에 나타난 유이태의 행적.'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제17권1호』. 2011. pp.1~10.
10. 유철호. 김남일. '마진편 저자와 저술시기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2 제25권 2호』. 서울. 2012. p.148. pp.151~152.
11. 이규근. '조선 후기 내의원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157.
12. 이지연. '구비설화에 나타난 치병관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논문』. 2007.
13. 『한국전염병사』. 제5장 조선후기. 3.홍역의 창궐과 조선시대 후기의 마진학. 서울. 대한감염학회. 2009. p.253.

<단행본>

1. 『거창군사』. 경남. 거창군사편찬위원회. 1997. p.210.
2. 『居昌劉氏 己丑譜』. 1769.
3. 『居昌劉氏族譜 1권』. 1988년. pp.289~292.
4. 『居昌劉氏族譜 3권』. 1988. p.5, 11, 402.
5. 『국역 실험단방』. 한국한의학연구원. 대전시. 리드컴. 2010. p.277.
6. 權相老. 『東儒學案』. 1944.
7. 金斗鍾. 『한국의학사.(상·하권 합본)』. 서울. 탐구당. 1966년. p.404.
8.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유의열전(儒醫列傳)』. 경기도. 도서출판 들녘. 2011. p.255.
9. 金承燦. 『慶南地方의 民譚』. 서울. 第一文化社. 1986. pp.18~19, 39~41.
10. 김신권. 『한의학서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p.774. pp.425~427.

257) 『神醫柳義泰先生墓碑文』. 山淸韓醫學博物館.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00-25 번지.

11.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2000. p.258. pp.107~108.
12. 김호. 『조선의 名醫들』. 경기도. (주)살림출판사. 2007. pp.50~61.
13. 대구사학회편. 『영남을 알면 한국사가 보인다.』. 서울. 푸른역사. 2005. pp.268 ~ 274.
14. 『동의보감』. 東醫寶鑑雜病篇卷之一. 경남. 동의보감출판사. 2005. p.980.
15. 『麻疹篇』. 진주. 회춘현약방. 1931.
16. 『목재집』(교판 양처제. 挽劉以泰 伯元 三首). 약현집(형조참판 송징은).
17. 박종섭. 『거창명승지의 역사와 전설』. 대구. 도서출판 문창사. 1997. pp.64~69.
18. 박주현. 『마진편』. 발간문. 별지2. 진주시. 회춘현약방. 1934.
19. 산청군수. 『동의보감·산청 허준과 류의태 이야기』. 경남. 도서출판 인디. 2009. p.44, 79, 94.
20. 산청군수. 『산청한의학박물관도록』. 경남. 산청군. 2008. pp.157~158.
21. 『산청군지편찬위원회』. 제5편 성씨와 인물. 산청. 산청군·산청문화원. 2006년. p.994.
22. 『산청향교지』. 경남. 산청향교. 1991 2월. p.30.
23. 『산청향교지』. 경남. 산청향교. 2010. p.883.
24.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1. pp.47~48.
25. 『실험단방』. 필사본 복사본.
26. 『안동권씨 북야공파 족보 2권』. 1980. p.18.
27. 안동준. 『진주 옛이야기 (진주 문화를 찾아서 5)』. 서울. 지식산업사. 2003. pp.82~83.
28. 『안의향안지 鄉案』. 서울. 안의향교. 1976. p.17.
29. 『양주조씨족보 권상』. pp.469~470.
30. 『유이태 문집』.
31. 『유이태효행장』. 별지2. 민두참, 이초연, 오이격 등 99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유이태의 효행 및 선행장. 임진(1712) 7월 초3일.
32.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 상』.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0. p.47, 100, 141. pp.131~133, 258~267.
33.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 중』.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0. pp.151~152.
34.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 하』.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0. p.153.
35. 『인서문건록 해외영인본』. 남원 세화당 소장본.
36. 장일무. 『한국전통의약번역총서. 마진기방.마진편.마과회통』. 서울. 서울대천연물과학연구소편. 1995. 해제. p.65. pp.61~133.
37. 『조선환여승람 산청군』. 이병연(李秉延). 서울. 보문사. 1936.
38. 조희웅, 노영근, 박인희. 『영남 구전자료집2 경상남도 산청군』.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2003. pp.208~211.
39. 『晉州姜氏正順公派 世譜』. 1990.
40. 『晉州柳氏 대사성공파 甲戌譜』. 1934. p.五丙, 六丙.
41. 『晉州柳氏 대사성공파. 壬戌譜』. 1982.
42. 『晉州柳氏世譜 을유보 권1』. 2005. p.27. pp.200~201.
43. 『창령조씨 忠翊公文澤派族譜』.
44. 『창원군지』. 제11편 민속문화와 방언, 제2장 민요, 설화. 경남. 창원군청. 1994. pp.1705~1706.
45. 『청주한씨 양절공파 족보』.
46. 『초계정씨족보권1』. p.13.
47. 최완규. 혁명의 길. 『문학포럼 2000년 가을호』. 서울. 2000. p.192.
48. 『한국구비문학대계 1-4』.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설화. 성남. 한국정신문화원. 1981. pp.390~398.
49. 『한국구비문학대계 3-3』.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설화. 성남. 한국정신문화원. 1983. pp.806~809.
50. 『한국구비문학대계 7-4』. 경북 성주군 대가면 설화. 성남. 한국정신문화원. 19830. pp.203~204, 243~247.
51. 『한국구비문학대계 7-10』. 경북 봉화읍 설

- 화. 서울. 고려원. 1984. pp.100~102.
52. 『한국구비문학대계 8-5』. 경남 거창군 남상면 설화 16. 성남. 한국정신문화원. 1981. pp.833~843.
53. 『한국구비문학대계 8-6』. 거창군 위천면 설화 32. 성남. 한국정신문화원. 1981. pp.486~489.
54. 『한국구비문학대계 8-10』. 의령군 칠곡면 설화 59. 성남. 한국정신문화원. 1984. pp.200~202, 672~681.
55. 『한국구비문학대계 8-11』. 의령군 봉수면 설화 26. 성남. 한국정신문화원. 1984. pp.666~670, 670~678.
56. 『한국구비문학대계 8-14』. 하동군 악양면 설화 35. 성남. 한국정신문화원. 1986. pp.539~540.
57. 『한국구전설화집』. 서울. 민속원. 2000.
58. 『杏雨書屋 藏書目錄』. 財團法人 武田科學財團. 일본 오사카. 1982(소화57년). p.827, 924.
- <기타>
1. 『고의서산책 187』. ‘劉爾泰 麻疹篇.’ 민족의학신문. 2004년 01월 30일.
2. 『고의서산책 287』. ‘實驗單方.’ 민족의학신문. 2006년 04월 06일.
3. 『고의서산책 505』. ‘劉爾泰麻疹方.’ 민족의학신문. 2011년 09월 22일.
4. 광준(1551~1597). [출처]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
5. 『경남일보』. 칼럼. 2000. 02. 18.
6. 산청군청 문화관광과. 서울대치동아취급국. 등가:11346-0321-1561. 2012-04-02. 내용증명. 31346-0215-9168. 2012-04-12, 등가:11346-0272-5283. 2012-04-26.
7. 산청한의학박물관. 서울대치동아취급국. 등가:11346-0321-1560. 2012-04-02, 등가:11346-0272-3052. 2012-04-16.
8. 세계전통의학엑스포 조직위원회 강순경. 서울대치동아취급국. 내용증명 번호: 31346-0216-0805. 2013. 01. 03.
9. (재)산청세계전통의학엑스포 조직위원회. 등가번호 16032-0121-2527. 2013. 01. 14.
10. 『承政院日記』. 1710년 숙종 36년/ 01월/21일(정해). <http://sjw.history.go.kr>
11. 『承政院日記』. 1710년 숙종 36년/ 02월/11일(병오). <http://sjw.history.go.kr>
13. 『承政院日記』. 1713년 숙종 39년/ 12월/16일(기축). <http://sjw.history.go.kr>
14. 『승정원일기』. 1713년 숙종 39년 12월 20일. <http://sjw.history.go.kr>
15. 『承政院日記』. 1714년 숙종 40년/ 04월/09일(경진). <http://sjw.history.go.kr>
16. 『承政院日記』. 1714년 숙종 40년/ 06월/20일(경인). <http://sjw.history.go.kr>
17. 『承政院日記』. 1714년 숙종 40년/ 06월/24일(갑오). <http://sjw.history.go.kr>
18. 『承政院日記』. 1725년 영조 원년/ 05월/28일(을축). <http://sjw.history.go.kr>
19. 『承政院日記』. 고종17년 경진(1880, 6. 5월 25일). <http://sjw.history.go.kr>
20. 양처제(梁處濟. 1643년(인조 21) [출처] 네이버 백과. <http://terms.naver.com>
21. 『의약동참선생안』. 栖碧外史海外蒐佚本78. 『瘡疹集 외1종』.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p.520.
22. 李義立(1562년(명종17)~1642년(인조20). 출전: 네이버 백과. <http://terms.naver.com>.
23. 정운(鄭蘊, 1569~1641). [출처]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
24. 정인홍(鄭仁弘, 1535~1623). [출처]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
25. 『조선왕조실록 肅宗 54卷』. 39年(1713 癸巳) 12月 16日. <http://sillok.history.go.kr>
26. 조종도(趙宗道).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27. 진주류씨 류근모. 서울대치동아취급국. 등가:11346-0272-3738, 2012-04-19 등가

- 11346-0272-5285, 2012-04-26. 진주류
씨 류근모. 서울대치동아취급국. 내용증
명:31346-0102-2778. 2012-05-07.
28. 허준-신화에서 역사로(2) (1997, 상상 겨울
호). 경남일보. 칼럼. 2002. 2. 18.
29. “허준은 과연 스승을 해부했을까?” 1999년
7월 24일. 37회 방송. 서울. KBS.

